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한국 출신 스타트업 온누리 DMC 매스챌린지 결승 진출

한국 스타트업으로는 유일하게 결승 올라
2,500개 팀 중 128개 결승팀에 선정
“결승 진출, 투자의 좋은 발판 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2015년 매스챌린지에 도전한 한국 스타트업 ‘온누리DMC’가 지난 20일 수요일 한국팀으로는 유일하게 결승에 진출했다.

온누리 DMC는 전세계 60여개국에서 참가한 2,500개 스타트업 팀과의 경쟁을 뚫고 지난 4일 세미나피널 1차 심사에 합격했다. 이어 지난 20일 128개 팀만이 선택되는 결승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 경진대회인 매스챌린지에는 한국에서 총 16개 스타트업이 참가했으며 이 중 온누리DMC를 포함해 Goqual, Genius Factory, Sound Bridge, Zoomanzi 이상 다섯 팀이 세미나피널 진출에 성공했지만 온누리DMC만이 결승까지



2015년 매스 챌린지의 결승에 진출한 한국 출신 스타트업 온누리DMC

살아남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다.

“해외 진출에 앞서 엄청난 기회와 투자의 좋은 발판이 될 듯하다”는 소감을 앞서 밝힌 온누리DMC 측은 “우리나라 기술을

더욱 알리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잘 뛰어보겠다”며 한인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2면으로 계속



연대 국문학과 진학한 미 여고생 반루벤 양

4년 전부터 꾸준히 한국학교에서 공부
한인사회에 어울릴 수 있어 ‘감사하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매일 한국말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저는 대한민국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매일 더 사랑하고 있어요.”

애국가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기도 한다는 미 여고생 조이 반루벤(메드포드 고등학교, 12학년)이 올해 연세대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동시 합격했다.

“지난 3년간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국학교에서 (매주 토요일)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해 배웠다”는 조이 양은 한국학교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애정과 실력을 키워왔다. “일주일에 하루 뿐이지만 가장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할인항공권전문

From **\$1198**

보스톤-인천(왕복!) ONLY 1 Stop

6월 출발!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항공권 금액은 실제로 변동됩니다. 항공사, 여행일정, 예약상황 등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ACE TRAVEL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1a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vlkr
카톡상담아이디: IACEKOREA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e N.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Dir: 508.665.1544
Fax: 508.665.1537
june@selamilaw.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우리나라 기술 더욱 알리는 발판 되고자"

▶▶1면에 이어서

개인화 모바일 광고 플랫폼 '크로스타겟(CrossTarget)'을 개발, 운영하는 온누리DMC는 2014년 4월 법인 설립 이후 6개월 만에 600배 이상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았다.

'크로스타겟'은 모바일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가장 최적화된 광고를 다양한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PC에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의 다양한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관심 있게 본 상품, 장바구니에 스크랩을 했지만 구매하지 않았던 상품이 다양한 사이트에서 배너광고로 노출된다. 온누리DMC는 이와 같은 개인화 타겟팅을 모바일웹과 앱으로 옮긴 것이다.

온누리DMC를 포함한 129개 결승 진출 팀은 6월 22일부터 4개월간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현지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으며 다른 팀들과 경쟁을 벌이게 된다. 투자 상금을 받게 될 최종 26개 팀은 10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2015 매스챌린지의 향후 일정과 기타 정보는 홈페이지(masschallenge.org)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토요일 한국학교 "일주일에 하루 뿐이지만 가장 즐거워"

▶▶1면에 이어서

즐거운 날이었다" 고 전한 조이 양은 한국의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했고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합격장이 날라왔다.

조이 양은 아직도 합격 통보를 받았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봤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고 회상한 조이 양은 10학년 때부터 가고 싶었던 연세대를 선택했다. 지금은 신촌 캠퍼스를 누빌 생각에 밤잠을 설칠 정도다.

조이 양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4년 전. 그때부터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조이 양은 인터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로 진행했다. 이해하기 어렵겠다 싶은 질문은 영어로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한국어였다. 완벽한 한국어는 아니었지만 서투른 대답 속에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져왔다.

조이 반루벤 양은 본지와와의 인터뷰 처음부터 본인을 '권조이' 라고 소개했다. '권' 씨 성을 갖게된 계기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한국인 친구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본인의 성인 권씨를 추천해줬다" 는 조이 양은 "좀 놀랐지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고 일본어를 공부했다는 조이 양은 9학년 때 처음



(좌) 강상철 보스턴 한국학교 교장이 조이 양에게 한국학교 수료증을 전달하고 있다 (우) 보스턴 한국학교의 김동규, 이승연 선생님과 함께



한국 문화를 접했고 그때부터 알 수 없는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 는 조이 양은 "매일매일 한국어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고 자신있게 말했다.

조이 양은 한국어 실력을 쌓기 위해 매일 한국어 찬송과 음악을 듣고 한국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늘 한국인 친구들과 카톡으로 대화를 하며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드라마나 영화를 챙겨봤다. 핸드폰 설정도 당연히 한국어다.

또한 조이 양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 고백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는 조이 양의 아버지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겠다는 딸의 꿈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조이 양이 10학년이었던 때는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연세대 야구점퍼까지 부탁한 아버지였다.

인터뷰의 마지막으로 조이 양은 "한인 사회에 어울릴 수 있어 감사하다" 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가족같은 보스턴 한국학교의 김동규, 이승연 선생님과 강상철 교장 선생님께 감사하다" 며 "많은 도움과 격려를 받아 매주 토요일이 즐거웠다" 는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스레딩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펌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돌아온 보스톤의 졸업시즌, 2015 연사는 누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지난 17일 보스톤 커먼웰스 애비뉴가 가운데 학사모를 입은 보스톤 대학(BU) 졸업생들로 빨강계 물들었다. 이처럼 졸업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거리는 학생들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매년 그랬듯 대중의 관심은 각 학교의 초청연사로 누가 등장하는지에 쏠리고 있다.

졸업식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초청 연사 스피치에는 매년 정치, 경제, 문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초청 연사들은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스피치를 전하며 인생 선배로서 실속있는, 때로는 따끔한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졸업생이 아니어도 한번쯤은 들어볼 만한 연설이 아닐 수 없다.

올해 하버드의 초청 연사는 드벌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그는 1978년 하버드 학부를 졸업했고, 이어 1982년에 하버드 법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하버드 졸업식은 28일 목요일이다.

한편, 현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찰리 베이커가 지난 17일 서픽 대학의 초청 연사로 강단에 오르며 전, 현직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모두 올해 졸업

식 연사로 초청되기도 했다.

이미 지난 졸업식의 연사 스피치는 유튜브나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는 올해 보스톤 지역 대학의 연사들이다.

2015 보스톤 졸업식 연사

Harvard - 드벌 패트릭(Deval Patrick), 하버드 학부와 법대 대학원을 졸업한 패트릭 전 주지사는 2006년부터 8년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역임했다

MIT - 메간 스미스(Megan Smith), 백악관 최고기술책임자로서 10여년간 구글 임원으로 활동해왔다

UMass Boston - 지나 맥카시(Gina McCarthy), 미 환경보호국 국장이 오는 29일 유매스 보스톤을 찾는다

Wellesley College - 치마만다 아디치(Chimamanda Adichie), 나이지리아 소설가 아디치가 오는 29일 웰슬리 졸업식에서 스피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Boston University - 메레디스 비에이라(Meredith Vieira), 토크쇼 진행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비에이라가 지난 17일 보스톤 대학에서 “슈퍼볼의 왼쪽 상어가 되라” 는 조언을 했다. 아

직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거나 조금 엉성하더라도 사회의 획일화된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것

Tufts University - 매들라인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으로 재직했으며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17일 터프츠대 연사로 강단에 올랐다

Berklee College of Music - 디디 브리지워터(Dee Dee Bridgewater), 재즈 싱어이자 라디오 호스트로 활동하는 ‘만능엔터테이너’ 브리지워터가 지난 9일 버클리 연사로 초청받았다

Northeastern University - 데이비드 뮤어(David Muir), ‘ABC 월드 뉴스 투나잇’의 앵커로 활동하는 데이비드 뮤어가 지난 8일 노스이스턴 대학을 찾았다

Boston College - 블레이크 수피치(Blake Cupich), 프란치스코 교황이 뽑은 첫 미 대교구장이 지난 18일 보스톤 칼리지의 졸업식 연사로 나섰다

Suffolk University - 찰리 베이커(Charlie Baker), 매사추세츠 주지사 찰리 베이커가 지난 17일 서픽 대학 졸업식의 연사로 참석해 “건설적,



2013년 하버드 졸업식에 초청 연사로 참석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되어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라” 는 연설을 전했다

Babson College - 케빈 콜러란(Kevin Colleran), 페이스북 초기 임원으로 현재 슬로우 벤처스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6일 뱁슨 칼리지 연사로 초청받았다

UMass Amherst - 닐 타이슨(Neil Tyson), 천체 물리학자,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의 사회를 맡은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8일 유매스 앰허스트 졸업식에서 “살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연설을 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 AM - 11:00 AM April 4 - May 30
SAT II / AP Chemistry	11:30 AM - 1:30 PM March 21 - May 30
SAT II / AP Biology	2:00 PM - 4:00 PM March 21 - May 30

SAT Plus Summer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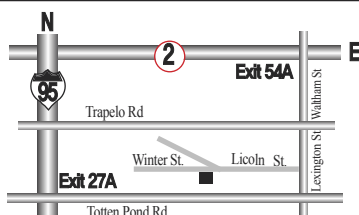
July 6 - July 24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August 3 - August 21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뉴햄프셔 한인회 주최 법률 세미나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회장 박선우)가 주최한 제4회 무료 법률 세미나가 지난 16일 토요일 맨체스터 소재 뉴햄프셔 장로교회(목사 장의한)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한인회를 위해 무료로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는 장우석 변호사가 1부 순서를 진행했으며 비즈니스 관련법과 이민자의 혜택 및 상속법, 유언장 관련법, 자동차 보험약관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국적 및 병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명우 행정원이 영사관 업무현장에서 겪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국적이탈, 상실, 회복, 이중국적 등에 관한 조항과 병역의무, 면제, 연기 등의 조항을 설명했다.

방 행정원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아의 경우라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국적이면 자동으로 한국국적도 얻게 되며, 이와 같은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국적 포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햄프셔 한인회가 주최한 무료 법률 세미나가 지난 16일 뉴햄프셔 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3부에는 뉴욕 라이프 인서런스(Life Insurance)의 뉴잉글랜드 지역 유일한 한인 에이전트인 윤광현 설계사가 텀 라이프(Term-Life) 생명보험과 홀라이프(Whole-Life) 생명보험에 대해 설명하고, 보험금 상속내용이 앞서 1부에서 다룬 유산 상속 관련법과 어떻게 맞물려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후에는 뉴햄프셔 장로교회에서 준비한 만찬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갈비탕과 과일 등의 푸짐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감사들과 직접 면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한인인 “총영사관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직접 듣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좋았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한인들이 활용해 이민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며 “내년에도 법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사진뉴스>

NEC,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에 명예박사학위 수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위해 지난 17일 일요일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졸업식에 참석했다.

이날 함께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아티스트로는 변화경 NEC 교수의 남편이자 거장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러셀 셔먼, 재즈 피아니

스트 아흐마드 자말이 있다.

아내 변화경 교수의 손을 잡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강단에 오른 피아니스트 러셀 셔먼은 졸업생들을 위해 “우리는 꿈과 환상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음악을 만든다” 는 축하 연설을 전달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NEC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정경화 씨가 교수진 후드를 걸친 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피아니스트 러셀 셔먼(가운데)이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을 위해 부인 변화경 NEC 교수(오른쪽)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다, 박수를 보내는 정경화 씨(왼쪽)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장관 "난 시민의 변호사"

네일샵 노동 착취 언급
"끔찍한 사건"

유급 병가법 7월 1일부터 시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이 자신은 법을 집행하는 인물이기보다는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의 변호사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지난 15일 금요일 힐리 법무장관은 보스톤에 위치한 법무부 장관 사무실에서 소수민족 언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두의 변호사'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힐리 법무장관은 "보스톤의 많은 이민자들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법무부에 대한 정보 및 이해가 부족하다"며 "이민 신분은 상관없이 법무부의 혜택을 법무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힐리 법무장관은 "공약 때 말했듯이 민족에 차별없는 '모두의 변호사'가 될 것"이라며 임금 체불, 차별, 폭력, 마약 등으로 고통받는 이민자들을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최근 뜨거운 조명을 받고 있는 뉴욕 네일샵의 노동 착취에 관한 이슈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 법무장관이 지난 15일 금요일 법무부 장관 사무실에서 소수민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 질의응답에서 거론되었다. 힐리 법무장관은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임금 착취(Wage theft) 케이스의 수사를 위해 처음으로 예산을 늘렸다. 무엇보다 고용인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힐리 법무장관이 특별히 강조한 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에 통과된 유급 병가법(Earned Sick Time Law)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고용인은 근무시간 매 30시간 당 1시간씩 병가를 축적할 수 있다. 11명 이상의 노동자를 두고 있는 고용주는 매년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하며 노동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40시간의 무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힐리 법무장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에 대해 "직업을 잃을까봐 병가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모라 힐리 법무장관은 주지사를 출마를 위해 법무장관직을 사임한 마사 코클리를 이어 지난 1월 59대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두 시간에 걸쳐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스톤코리아를 비롯해 중국, 포르투갈, 아일랜드, 캄보디아, 브라질 등의 지역 언론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용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용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맛있는 소풍, 공원에서 즐기는 숯불 바베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메모리얼 데이 주말을 앞두고 소풍을 계획하고 있다면 공원에서 즐기는 야외 숯불 바베큐를 추천한다. 드넓은 풀밭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고기를 굽는 어른들. 단란한 소풍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별다른 음식 솜씨 없이도 숯불 그릴 위에만 올라가면 모든 음식이 맛깔스럽게 변신한다. 야외 바베큐 메뉴로 가장 사랑받는 등심 스테이크(Sirloin Steak)는 소금, 후추로만 간을 해도 그 맛이 일품이다. 양념된 돼지고기나 닭고기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다. 이외에도 조개나 새우 등의 해산물과 파프리카, 양파 등의 채소도 풍성한 식탁에 한 몫 한다.

안타깝게도 이날만큼은 삼겹살은 집에서 쉬는 편이 좋다. 삼겹살에서 떨어지는 기름으로 인해 아찔한 불 쇼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공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삼겹살은 자제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 아쉬운 사람은 주물럭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 것도.

지면을 통해 그릴이 마련된 보스톤 인근 공원을 소개한다. 신나는 야외활동과 푸짐한 식사를 동시에 즐기는 맛있는 소풍을 떠나보자.

▶아스널 파크

485 Arsenal St, Watertown, MA 02472
617-972-6494

워터타운에 위치한 아스널 파크(Arsenal Park)는 일반 숯불 그릴이 5개, 더블 사이즈 그릴이 4개나 마련되어 있다. 워터타운 레크리에이션 홈페이지(activityreg.com/selectfacility.wcs)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농구장, 테니스장, 놀이터 등이 마련되어 있어 신나는 야외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코치추에이트 스테이트 파크

43 Commonwealth Rd, Natick, MA 01760
508-653-9641

드넓은 호수 옆에 위치한 코치추에이트 스테이트 파크(Cochituate State Park)는 숯불 그릴이 여러 개 구비되어 있으며 개인용 그릴(숯불 또는 전기)을 가져오는 것을 허용한다. 공원에 마련된



그릴은 사전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차비는 \$8이다.

▶라즈 앤더슨 파크

15 Newton St, Brookline, MA 02445
617-522-6547

브루클라인의 아름다운 라즈 앤더슨 파크(Lars Anderson Park)에는 숯불 그릴과 피크닉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다. 피크닉 허가증(Picnic permit)을 받아야 하며 브루클라인 거주자는 \$40, 타 지역 거주자는 \$80이다. 허가증은 617-730-2069로 전화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화 접수는 금요일 정오까지 받는다. 구비된 그릴 외 개인용 그릴은 가져올 수 없다.



▶보스톤 하버 아일랜드

15 State Street, Suite 1100, Boston, MA 02109
bostonharborislands.org

페리를 타고 섬으로 떠나는 이색적인 소풍을 원한다면 보스톤 하버 아일랜드를 추천한다. 조지스, 그레이프, 범킨, 페독스, 러벨스 아일랜드,

웹 메모리얼 파크에 그릴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테이블 예약은 파크 레인저를 통해 할 수 있다. 페리 티켓은 어른 \$17, 학생 \$12, 12세 이하 어린이는 \$10이다. 3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다.



▶프랭클린 파크

1 Franklin Park Rd, Boston, MA 02121
617-442-4141

프랭클린 파크(Franklin Park)는 숯불 바베큐를 허용하는 유일한 보스톤 내 공원이지만 개인용 숯불 그릴을 가져와야 한다. 프랭클린 동물원이 근처에 있어 식사 후 동물원 나들이를 다녀와도 좋을 듯하다.

▶헤르터 파크

1175 Soldiers Field Rd, Boston, MA 02228
브라이튼에 위치한 헤르터 파크(Herter Park)

에는 공원 내 구비된 그릴은 없지만 개인용 전기 그릴을 가져오는 것을 허용한다. 공원 내 아티사니(Artesani) 놀이터에는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놀기 적합한 미니 풀이 마련되어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s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퓨전국악과 부채춤 공연에 미국인 관중 함께 '덩실덩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16일 콩코드 소재 엠브렐라 예술관에서 열린 한국문화의 밤 콘서트에 300여명의 관객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 공연에는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NEC) 학생들의 퓨전국악 연주와 소고춤, 부채춤 등의 한국 전통무용이 무대를 장식했다.

클래식 기타리스트 요나스 쿠블리카스(Jonas Kublickas)의 인사말과 곡 소개로 시작된 이날 무대는 박찬희 씨가 이끄는 한국 전통 무용단의 소고춤으로 시작되었다. 푸른 저고리와 하얀 치마의 무용복을 입은 이시아나, 김메간, 리선 토미 양은 손에 작은 북을 쥐고 한국춤의 우아함과 한복의 아름다움을 자랑했다.

뒤이어 퓨전국악 밴드 '하품하는 하마' 가 네 곡의 레파토리를 선보였다.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의 가야금 주자 김도연 씨와 색소폰과 베이스 클라리넷 연주자인 아브라함 멘넨(Abraham Mennen), 타악기 연주자

아론 에드콥스(Aaron Edgcoms)는 재즈리듬과 한국 전통리듬을 이용해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음악을 선보였다.

창작곡인 '노고'의 연주로 무대를 연 이들은 독특한 기법으로 재해석한 뱃노래 등의 국악을 연주했다.

김도연 씨의 산조 독주는 관중을 매료시켰으며 특히 자진모리가 연주될 때에는 관중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에론 에드콥스는 장구반주 대신 북을 연주했으며 한국적인 추임새를 넣어 관중의 몰입도를 고조시켰다.

이어진 무대는 13세에 고전무용을 배우기 시작한 인간 문화재에게 전통춤을 사사한 박찬희 씨의 부채춤이었다. 이시아나와 김메간, 리선 토미 양 외에 케일리 블래처, 그리고 청일점인 조세프 통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큰 모란꽃 무늬의 부채와 너울너울 흔들리는 몸짓의 부채춤은 콩코드 지역에서 참석한 미국인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흥겹게 이어진 장구춤 공연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인 2세 마틴 황 씨는 "오늘의 경험이 너무나 귀했다"며 "보스톤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전통악기를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회장은 "최근 국악을 좋아하는 미국인이 많이 늘고 있다. 국악을 거부감 없이 전달하고자 두 공연 그룹을 초청해 지루하지 않게 콘서트를 꾸몄다"고 전했다. 아울러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가 내년 봄에 국악 워크숍을 기획한다"며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말했다.

특별 후원으로 도움을 준 뉴욕 한국문화원의 노일식 원장과 한 효 전통예술부장, 이화영 인턴이 이날 공연에 참석했다.

행사 후에는 보스톤 소망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푸짐한 한식 리셉션이 이어졌으며 관중들의 즐거운 파티는 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문화 콘서트와 콩코드 도서관에서 5월 말까지 전시되는 콩코드 도



(위) 밴드 <하품하는 하마>가 퓨전국악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아래)박찬희 씨의 전통무용팀이 부채춤을 추고 있다

서관 가정의 달 전시회는 한미예술협회 주관 하였고, 콩코드 도서관이 주관하였으며, 콩코드 도서관 후원회, 엠브렐라 예술관, 보스톤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아프리카 고아 합창단, 감동 메시지 화음으로

아프리카 전통 춤과 노래에 250여명 관객 박수갈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아프리카 고아 어린이 합창단와 와토토(Watoto)의 감동 합창 무대가 지난 13일 북부 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돼 250여명의

관객이 운집했다.

이날 공연의 관객으로는 미국인 참석자들이 눈에 띄게 많았으며 이들의 합창 무대를 보기 위해 워체스터나 글러스터에서 찾아온 관객들도 있었다.

합창단이 선보인 "Oh, What Love"라는 주제는 20명의 우간다 작곡가들이 고아 어린이들의 이야기와 신앙을 섬세히 엮어낸 작품으

로 젊은 아프리카인들이 각자의 고유한 재능으로 희망과 열정을 그려낸 무대가 펼쳐졌다.

관객들은 아프리카의 독특한 음악과 춤에 매료되었으며, 고아 어린이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공연 관계자는 "아이들의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신선한 공연은 많

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었다"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여러모로 후원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의 기회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와토토 합창단은 에이즈로 부모를 잃어버리고 와토토 어린이 보호사역(Watoto Child Care Ministry)에 의해 구조된 6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이들로 구성되었으며 6개월간 펼쳐지는 미국 순회 공연의 일환으로 보스톤을 방문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공연후 단체 사진을 찍는 와토토 어린이 합창단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지난 16일 열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역사골든벨 행사 및 독도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학교 학생들의 독도자랑 "역사는 아름답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제2회 독도자랑대회 시상식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는 지난 16일 역사골든벨 본선행사 및 제 2회 독도자랑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의 역사를 잘 배우고 우리의 것을 잘 지켜나가는 목적으로 기획된 이날 대회에는 지난 9일 열린 예선 대회에 참가한 약 2백명의 학생 중 본선에 진출한 62명이 참석했다. 본선에 진출한 학생들은 학교와 집에서 공부한 한국의 역사와 선진과학유산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마음껏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남일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된 개교 40주년 기념 행사는 하나하나가 모두 학생들이 참여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만든 행사여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며 “2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잊지 않고 열심히 배워 다음 세대에까지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대회의 시상식 후에는 ‘독도는 우

리 땅 삼행시 부문’ 에서 최종심사까지 동점을 얻어 공동 대상의 영예를 안은 김수경, 윤호원 학생의 작품 낭독 순서가 이어졌다. 모든 수상자들의 글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역사골든벨 최종 결선대회에서는 개인부문 최종 우승자로 이혜린(초급-백제2반), 정기려(중고급-조선반)이, 가족부문은 이세라 학생 가족이 대상을 차지했다.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를 대신해 축사를 전한 이광석 교육영사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 상으로도 우리 땅이며 끊임없이 왜곡된 주장을 하는 일본에 잘 대응하기 위해 한인 2세대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독도에 대해 보다 더 잘 배우고 잘 알아야 한다” 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독도 삼행시와 역사골든벨 행사는 한국역사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경해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회장은 “오랫동안 겪어 온 독도 이슈를 한인사회 뿐 아니라 미국사회에도 잘 알려져 제대로 교

육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는 인사말을 전했다.

오는 6월 13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예발표회 및 졸업식이 열리며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9월 새학기 입학 및 교사 지원 문의는 남일 교장(508-523-5389 또는 ksneusa@verizon.net)을 통해 하면 된다.

삼행시 부문 공동 대상 수상작(김수경, 8학년)

독도에 해가 뜨고 해가 진다. 눈이 오고 꽃이 핀다.

우리 곁에 독도야 한결같아라. 역울함의 핏물이 퍼지고, 눈물을 쏟아도 우리 안에 슬픔, 강치야 슬퍼 말아라.

우리 곁에 잘 자란 우리 땅 독도야, 걱정 말아라, 독도야, 한결같아라.

삼행시 부문 공동 대상 수상작(윤호원, 8학년)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존심!
우리가 지켜야 할 당당한 주권!
땅끝까지 동해의 보물을 지키자!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산악회 8차 정기산행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회장 현정원)가 오는 23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마운트 웰치 앤 디키 루프(Mt. Welch&Dickey Loop, 2700피트)

산행의 난이도는 5단계 척도법으로 3.0(보통)이며 산행 소요시간은 약 3시간 30분이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및 간편 중식이다.

산행 당일 집결은 올스톤 공영주차장에서 오전 7시, Park&Ride Exit 2 of RT93에서 오전 7시 45분이다.

산행 신청은 산행 전 목요일인 21일 오후 6시에 마감하며 신청시 원하는 조(A, B, C)와 집결지, 차량 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 회비는 \$20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617-869-5157로 하면 되며 산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스톤산악회 카페 웹사이트(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에서 찾아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한인성당 알뜰 바자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인천주교회가 오는 30일(토요일) 어번데일 소재 보스톤 앙투안 다블뤼 성당 마당에서 바자회를 갖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바자회에는 의류 및 잡화, 그릇, 앤틱 가구, 생활용품, 명품 가방 등의 다양한 물건이 있다. 이외에도 떡볶이와 만두, 전 등의 먹거리가 준비될 예정이다.

바자회 관계자는 “새것과 다른 없는 다양한 물품이 착한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다” 며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바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성당 사무실(617-558-2711 또는 office.kccb@gmail.com)로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5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장소: 보스톤 앙투안 다블뤼 한인천주교회 (45 Ash St, Auburndale, MA 02466)
bostonkorean@hotmail.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o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USS 컨스티튜션이 3년간의 복원작업을 위해 지난 18일 찰스타운에 위치한 건선거(Dry dock)에 진입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군함, 복원작업 시작

군함 내부 투어 잠정 중단
갑판 투어는 6월 9일 재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해상에 떠 있는 배 중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USS 컨스티튜션(Constitution)이 3년의 복원작업을 위해 지난 18일 찰스타운 건선거(Dry dock)에 진입했다.

18일 밤 10시 12분께 수면에서 들어 올려진 USS 컨스티튜션은 건선거에 장착되어 건조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배 내부를 둘러보는 투어는 잠정 중단되었지만 갑판과 외층에 제한된 투어는 오는 6월 9일 화요일 재개

될 예정이다.

해군 사령관 폴 브로우리(Paul Brawley)는 “군함 복원의 목적은 배를 새롭게 개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함” 이라고 밝혔다. 복원에 필요한 비용은 해군에서 전액 지원하며 1천 2백만 달러에서 1천 5백만 달러 사이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3년간 진행되는 복원 작업의 주목적은 흡수선(배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선) 아랫부분의 구리판 교체다. 구리판을 입히는 이유는 나무 벌레나 해양생물이 점착하는 것을 방지해 배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함이다. 복원 프로젝트는 갑판 교체와 돛대 관리를 포함한다.

한편, USS 컨스티튜션에 입힐 새 구리판 3천 4백장이 찰스타운 소재 USS 컨스티튜션 박물관에서 대기 중이다. 군함에 장착되기 전까지 여름 동안 박물관 방문자들은 구리판에 마커로 사인을 할 수 있다. 박물관 입장은 무료지만 1인당 약 \$5의 기부가 권장된다.

USS 컨스티튜션은 길이 약 62미터, 폭 6.7미터, 배수량 2천 2백여톤, 함포 44문을 장비하고 있는 군함으로 1798년부터 1854년까지 운항했다. 1812년 영국 해군을 상대로 한 세 차례의 해전에서 영국함을 크게 무찌른 USS 컨스티튜션은 당대 최고의 무적함으로 알려졌다.

dyoo9146@bostonkorea.com



케이프 코드행 주말열차 재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주 금요일 오후 보스톤을 출발하는 주말 열차 케이프플라이어 서비스가 22일 시작해 레이버 데이까지 이어진다.

올해 케이프플라이어는 두 가지 신규서비스를 추가했다. 하나는 사우스 스테이션에서 케이프코드로 바로 가는 직항로와 중간 정차지를 거처가는 완행 열차의 경우 브락톤에 정차역을 하나 추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열차는 금요일 밤 5시 12분에 사우스 역을 출발해 케이프코드의 미블보로 역까지 8개의 정거장을 거쳐야만 했다. 올해

는 사우스 스테이션에서 5시 50분에 출발해 다른 기차역을 대부분 거치지 않는다. 또한 다른 곳을 들러서 가는 열차의 경우 브락톤을 추가 정차역으로 지정 지역 승객들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기차 이용승객은 모두 12,526명이었으며 2013년에는 15,786명이었다. 지난 2013년 첫해에는 6주를 더 연장해 콜럼버스데이까지 열차를 운행했으나 큰 반응을 얻지 못하자 지난해 운영을 단축했다.

hsb@bostonkorea.com

지난 폭설 피해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신청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는 지난 겨울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로 융자하는 SBA 재난 대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2일사이 Barnstable, Bristol, Essex, Middlesex, Norfolk, Plymouth, Suffolk and Worcester 카운티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최고 2백만불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율은 자영업자들이 4% 그

리고 비영리단체가 2.625%의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고 30년이다.

해당 업체들은 스몰비즈니스사 업청(SBA)의 전자대출 신청서 웹사이트를 (<https://disasterloan.sba.gov/ela>)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신청해도 된다. 완료된 신청서는 내년 2월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가능하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공립 도서관에서 고가 미술품 사라져

람브란트와 뒤러의 작품,
60만 달러 가치

경찰은 내부 직원 범행에
가능성 두고 수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공립 도서관에 보관 중이던 고가의 미술품 2점이 사라졌다. 경찰은 이 미술품들이 도서관 내부 직원에 의해 도난 당했는지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사라진 미술품은 람브란트의 초상화와 아담과 이브를 그린 알브레히트 뒤러의 그림이다. 람브란트의 초상화는 감정가가 2만에서 3만 달러이며, 뒤러의 그림은 6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작품이다.

보스톤 공립 도서관은 지난 4월 29일 사라진 미술품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보고서에 의하면 보스톤 공립 도서관 관계자는 4월 8일에 미술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익명의 제보자는 미술품 도난이 경찰에 신고되기 1년 전부터 도서관에 없었다고 보스톤 헤럴드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제보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원을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보스톤 경찰서의 부패

방지팀에서 맡게 되었다. 부패방지팀은 주로 보스톤 시 공무원의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데, 미술품 도난 사건은 보스톤 공립 도서관 내부 직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패방지팀에 사건이 배정되었다.

에이미 라이언 보스톤 공립 도서관장은 성명을 통해 "단순히 행정상의 실수로 미술품을 못 찾았 있는 것이지를 바란다"며 "큐레이터와 도서관 직원들이 샅샅이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범죄 행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스톤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언 관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20만 점에 달하는 예술 작품에 대한 목록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라진 알브레히트 뒤러의 작품 '아담과 이브'는 감정가가 60만 달러에 달한다

독립 기관에 의뢰해 보안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라진 람브란트의 초상화는 보스톤 공립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30개의 람브란트 작품 중 하나이며, 뒤러의 작품 역시 보스톤 공립 도서관이 105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전시를 목적으로 보관실에서 나온 이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

jsi@bostonkorea.com



전기 요금 한 달에 \$25 내린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최대 전기 공급 회사인 에버소스(Eversource)가 매사추세츠 주 정부에 전기 요금 인하를 요청했다. 만약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매사추세츠 주 동부에 거주하는 상당수 주민들의 평균 전기 요금이 20% 인하된다.

에버소스는 지난 20일, 일반 전기 사용자를 위한 전기 구매 가격 인하를 신청했다. 전기 구매 가격은 에버소스 같은 전기 공급 회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이다.

에버소스가 신청한 전기 구매 가격 인하를 매사추세츠 공공사

업부가 승인하면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월 평균 25달러를 전기 요금에서 아낄 수 있게 된다. 승인이 나면 새로운 전기 요금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매사추세츠 주의 전기 요금은 지난 겨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등했다. 그러나 에버소스 매사추세츠 전기 운영 최고 책임자인 크레이그 홀스툼은 전기 요금을 작년 여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사추세츠 동부 지역에서 에버소스를 통해 전기를 공급 받는 주민은 100만 명 이상이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紅蔘
KOREAN RED GINSENG

하루 2번, 건강을 지키는 습관

- ✓ 기력회복
- ✓ 감기예방
- ✓ 당뇨 합병증 예방
-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 항암효과
- ✓ 혈액순환 개선
-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동인비진 크림
DONGINBI Red Ginseng
Power Repair Cream / Balm

전화주문 서비스 ✓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617.547.0212
Mixitrestaurant.com

FREE SPICY TUNA ROLL
with purchase of any sushi \$30 or more

WE DELIVER lunch and dinner

Mix-it Sushi Noodle Grill | 1678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8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가이드 앤 맵

KOREAN GUIDE & MAP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널리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관

3만부를 매년 2월 말부터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사랑을 아낀게 느껴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후원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테스트 업소에 당선을 초대합니다.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 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아 고객들을 위한 위주로 풀리들이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신청이 빠른 계층을 꼭우려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관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 배포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상원 예산안 중저소득 총 세금 감면

저소득 가정의 세금 크레딧 규모 늘린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상원은 19일 중저소득층의 세금 감면을 위한 세금정책안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개인과 부부 세금보고자들의 세금 감면과 저소득 가정의 EITC의 50% 확대를 위해 현재의 소득세율을 5.15%로 그대로 동결키로 했다.

29-11의 표결로 인준된 이번 세금법안의 찬성의원들은 중산층의 등대와 임금 정체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세금감면에 찬성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점차적으로 소득세를 감소키로한 정책을 중지하고 저소득층의 세금감면을 제한한 상원지도부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이번 2016년 예산안 수정안은 향후 3년간에 걸쳐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금 크레딧(EITC)을 50% 인상해 연방 정부의 22.5%에 달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이로 인해 주정부는 매년 약 1억4천5백만불의 예산을 이에 사용해야 한다.

상원 예산안의 통과로 인해 약 근로 소득세금크레딧(EITC)을 받는 주내 41만 5천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상원은 이 같은 세금감면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결국 지역의 상품에 소비하게 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브루스 타르 의원은 소득세 감면을 계속 진행하면서 EITC를 두배로 늘려 30%에 이르게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결국 통과



시키지 못했다. 그는 “이 같은 이번 표결이 지난 2000년도 주민투표에서 소득세율을 5%로 낮추라는 승인안 실현을 거부하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타르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도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을 지지하지만 소득세 감면안 동결 없이 EITC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타르 의원은 2015년 예산안에서 1억6천3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며 총 38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의 지출처를 다시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츠필드 민주당 상원 다운링 로드리게스 의원은 지난 2000년 주민들이 소득세 감면안을 승인한 이후 25%의 감면이 상위 소득 1%, 즉 한해 평균 수입 257만불 이상의 소득자에게 돌아갔으며 67%의 감면이 상위 20% 소득자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다운링 의원은 “이것이 바로 지금의 매사추세츠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세정책의 현실이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득세율을 동결하고 모든 납세자들에게 감면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통과된

감면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원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하원이 상원의 조세 정책안에 동의하고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이에 서명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공화당 주지사인 베이커는 높은 세율에 반대하며 하원은 예산안에 세금 인상 및 감면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지 않는 상태다. 로버트 달리오 하원 의장은 세금 변경은 하원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상원에서는 고려조차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주지사는 올해 EITC를 두배로 늘려 연방 세금 크레딧의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소위 말하는 영화제작 세금 크레딧 8천만 달러를 폐지하겠다고 예산안을 통해 밝혔었다.

상원의 예산안에 따르면 EITC수급자들의 평균 환급액은 해당 \$315에서 \$470로 인상되게 된다. 또 최대 EITC 지급 금액은 현행 \$937에서 \$1405로 상향조정된다. 또 이 수정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는 싱글인 경우 \$400-\$4800까지 감면되며 결혼한 부부의 경우 \$800-\$9600까지 감면된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최저임금, 주당 110시간 일해야 2베드룸 아파트 살 수 있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시간당 \$9씩 받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매사추세츠 주내 2베드룸 아파트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당 110시간을 근무해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아 2베드룸 아파트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저소득하우징연합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의 2베드룸 공정시장 가격은 \$1281이고 이는 곧 월 소득이 \$4270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시간당 \$9받는 근로자가 주당 110시간을 근무해야 이 금액을 벌 수 있다는 결론이다. 미저소득하우징연합은 매년 소득의 30% 이내를 렌트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벌어야 하는 월 소득에 기초해 조사해오고 있다.

그러나 주내에서 월 렌트 \$1281에 2베드룸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보스톤, 케임브리지, 그리고 퀴즈 등 매트루 지역의 평균 렌트 가격은 \$1494에 달한다. 또한 128만 인구의 교외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주당 128

시간을 일해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의회에서 최저임금을 인상시킨 이후에 나아진 수치다. 지난 2013년의 경우 주내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주당 120시간을 일해야 2베드룸 렌트를 소득의 3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었다.

매사추세츠의 최저임금은 매년 1불씩 인상돼 2017년에는 시간당 \$11로 오르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소위 말하는 하우징 임금(주 40시간 일해 렌트비를 30% 이하로 부담할 수 있는 시간당 임금)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됐다. 매사추세츠 주 2베드룸 하우징 임금은 \$24.64로 미국 내에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케임브리지-퀴즈의 하우징 임금은 무려 \$28.73에 달한다.

미국 평균 2베드룸 하우징 임금은 시간당 19.35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내에서는 어떤 주에서도 소위 최저 임금을 받아 시장평균의 아파트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국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과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ACTON

For Sale: \$ 22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교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 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교가 좋습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NYT, 네일샵 이어 주유소·식당 착취 만연...한인 업소 재고발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뉴욕 타임스(NYT)가 네일샵에 이어 주유소와 식당에서도 노동착취가 만연하다고 추가 고발하면서 한인 업소들을 다시 정조준했다.

특히 NYT는 뉴욕 퀸즈의 한 한국 식당을 일례로 들며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업주의 재산 빼돌리기에 주목했다.

NYT는 20일 "부당한 임금, 네일샵 통뿐이 아니다(When It Comes to Wage Abuses, It's Not Just the Nail Salons)" 제하의 기사에서 네일샵의 직원뿐 아니라 24시간 주유소, 식당, 음식배달업, 비노조 건설노동자 등 피고용인들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악덕 고용주들이 임금을 흠치는 능력은 숨을 멎게 할 정도"라고 뉴욕 한인 식당을 일례로 들며 소송을 제기해 합의하더라도 업주들이 또 다시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NYT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현지 업체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나섰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건설업과 요식업의 경우 착취 실태가 더욱 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YT는 뉴욕의 한 한인 식당을 일례로 들었다. NYT에 따르면 이 식당에 일하던 요리사는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으며 일주일에 6일씩 일하다가 업주인 한인 부부를 고소했다. 이 요리사는 초과 근무에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NYT는 전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한인 부부는 법무비용을 포함해 5만3400달러를 요리사



에게 제안했고 양측 사이에 합의가 성사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에 의한 합의 조정 직전 한인부부는 뉴욕 배이사이드 소재 주택을 돈 한푼 받지 않고 아들에게 양도했다. 이에 요리사 변호사는 '사기 양도'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을 하며 양측간 소송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요리사의 변호사는 한인부부가 당초 합의금보다 더 적은 돈을 다시 제안했다며 이번 소송이 합의될 지도 모르지만 이 사건은 현재 법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법이 개정된다면 (한인 부

부의) 집을 그냥 압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식당 이외에도 뉴욕 주 홀브룩의 고속도로변에 있는 24시간 주유소를 소개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전했다.

NYT에 따르면 이 곳에서 하루 12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하던 이민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로 사장을 고소했지만 업주는 파산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 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등 대부분 이민자 출신이다.

kirimi99@news1.kr

뉴욕 주, 네일샵 노동조건 개선하든지 문 닫든지

주지사, 개선법안 제출...
위반시 폐업 혹은 벌금

임금 체불 대비 영업책임
보험 의무화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 주(州) 지사가 주내에서 네일 업체들이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폐업될 것이라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한인 주도의 뉴욕 네일 샵들의 노동 착취와 임금 차별을 고발한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8일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하면서 성명을 통해 "우리의 지향점은 단순하다"며 "뉴욕주에서 착취가 있을 곳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일 샵 직원들의 권리는 존중되어야만 한다"며 "노동권이 존중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네일업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쿠오모 주지사가 발의한 법안은 뉴욕 주정부가 네일 샵업계를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네일 업체가 직원들의 노동권을 위반하면 폐업 혹은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식이다.

법안은 또 네일샵 직원들이 위해한 화학물질을 만질 때 고용주는 마스크, 장갑, 눈 보호막 등 충분한 장비를 준비하고 적절한 환기시설을 구비하도록 의무화했다.

손톱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 네일샵에 취업해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근로와 교육을 겸한 수습생 제도도 도입된다.

자격증 시험의 언어도 추가되며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교육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무료 영어 강좌도 확대된다.

또 네일 샵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샵들은 관련한 영업책임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은 즉시 발효된다.

이전에는 샵업주가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지급 불능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험조항으로 이러한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뉴욕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뉴욕 네일샵업계 70~80%를 점유하고 있는 한인 네일샵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는 NYT가 지난 7월과 8월 뉴욕 네일샵의 많은 종업원들이 최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유해한 성분의 네일제품에 노출돼 있다고 보도한 것에 따른 것이다.

뉴욕 한인네일협회는 NYT가 업계 상황이 취약하던 20~30년 전의 얘기를 현재 실태처럼 과장해 보도했다며 반발했다.

협회는 NYT가 중국, 베트남인도 많이 운영하는 네일샵의 잘못을 모두 한인에게 떠넘겨 인종차별적으로 한인을 비하했다고 비난했다.

kirimi99@news1.kr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휴일없는 미용실
Bliss Image

봄날의 싱그러움을 찾아 드립니다

- 남녀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바디 마사지
- 영구화장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미용사 구함

손영권 치과
Young Dentistry, PC

좋은 치과
좋은 치아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미 공화 대선후보 난립... 폭스뉴스 첫 TV토론 10명으로 제한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난립하면서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가 오는 8월로 예정된 첫 TV토론의 참여 후보를 1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폭스 뉴스는 20일 첫 TV토론 직전 실시된 5차례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10위 안에 든 후보들만을 상대로 TV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오는 8월 6일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첫 TV 토론을 할 예정으로, 폭스 뉴스는 이보다 이틀 전인 4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 5개의 평균치를 산출해 참여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폭스 뉴스는 다만 TV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

는 당일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후보들의 주장이나 활동상을 보도한다는 계획이다.

후보 난립에 골머리를 앓는 RNC 측은 폭스 뉴스의 이 같은 방침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후보가 10명을 훨씬 넘길 정도로 난립하는 것은 역대 대선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만 15명이며, 최대 2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대선구도를 보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유력시되는 것과 달리, 공화당에서는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어 내부 경선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선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등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또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HP) 회장 등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곧 선언할 예정인 인사 이외에도 릭 샌토럼(펜실베이니아) 전 상원의원,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조지 파타키 전 뉴욕주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피터 킹(뉴욕) 하원의원의 출마설도 나온다.
sims@yna.co.kr

"힐러리 이메일 1차분 금명 공개... 벙가지사건 위주"

NYT, 300여쪽 내용 보도...
벙가지 파견 미 대사 행방 등 일부 민감정보"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 자신의 개인 이메일을 이용해 주고받았던 내용 가운데 일부가 금명간 공개될 예정이다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 자신의 개인 이메일을 이용해 주고받았던 내용 가운데 일부가 금명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20일 총 5만5천 쪽의 이메일 가운데 이번에 1차로 공개되는 850 쪽은 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 외교실패 사례로 꼽히는 '벙가지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클린턴 전 장관의 라디오 청취 습관, 신문 1면에 난 자신의 사진에 관한 대화 등 사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가 며칠 안으로 공개할 예정인 이 이메일은 2012년 9월 리비아 무장집단의 미국 영사관 공격으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대사 등 미국인 4명이 숨진 '벙가지 사건'을 조사 중인 미 하원 '벙가지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NYT는 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입수했다면서, 그 내용은 "개인 이메일로 기밀정보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클린턴 전 장관의 기존 주장을 대체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는 '민감한 정보'이거나,

기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민감한(SBU, sensitive but unclassified)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2011년 리비아의 정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지에서 있었던 국무부 관리들의 소재지 정보가 이메일에 들어간 것이 꼽힌다.

예컨대, 참모인 휴마 아베딘이 클린턴 전 장관에게 '벙가지 사건' 1년 반 전에 전달한 한 이메일은 "미국 특사단은 현재 (호텔비 결제) 등 막바지 확인 단계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는(스티븐스 대사는) 상황이 악화되는 지를 주시하겠지만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2~3시간 더 기다려보다가 떠나는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사건 이후에는 클린턴 전 장관

과 참모들간 파장을 우려하는 이메일이 주로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몇몇 이메일에는 벙가지 사건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초기 설명과 배치되는 정보가 담겨있거나, 공화당이 이 사건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클린턴 전 장관의 우려가 들어 있었다.

이메일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2011년 3월 자신의 한 정책 참모로부터 "NYT 1면에 난 사진이 정말 멋지네요"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이 참모는 이후 좀 더 중요한 업무를 맡는 직책에 기용됐다.

NYT는 더 많은 분량의 나머지 이메일에 대한 공개시점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quintet@yna.co.kr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지역에서 일어난 송유관 파열사고로 20일 현재 일대 해안선 14km 이상이 기름에 오염됐다

미 산타바바라 해양 오염... 캘리포니아주 비상사태 선포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에드먼드 브라운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일(현지시간) 해안도시 산타바바라 기름 유출 사태와 관련 주 전체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해안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기름띠 제거 작업을 시작할 전문 인력을 신속히 파견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전날 산타바바라의 101번 해안고속도로를 따라 설치된 송유관이 파열돼 최대 10만5000갤런(약 40만 l)에 달하는 기름이 유출됐다.

파열된 송유관은 '플레인 올 아메리카 파이프라인(PAAP)' 소유로 시간당 5만4000갤런의 원유를 수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레 약 60cm의 이 송유관은 1987년 지어졌으며 인근 원유 저장시설에서 캘리포니아 남부 정유시설로 원유를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PAAP는 최악의 경우 산타바바라 서쪽에 위치한 레퓨지오 바다로만 2만1000갤런이 유입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립 해양공원인 레퓨지오 해변은 폐쇄됐고 25일 현충일 휴일에 재개장할 수 있을 지도 불분명하다.

한편 기름이 유출된 해변에는 약 32km의 기름띠가 형성됐다. 방호복을 입은 인력은 이틀째 기름띠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18년래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한 최악의 기름 유출로 기록될 전망이다.

lchung@news1.kr

오바마 지지율 53%, 2013년 9월 이후 최고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13년 9월 이후 최고인 53%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지난 6~10일 전화인터뷰 방식으로 성인 1천24명을 상대로 조사해 21일(현지시간)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두달 전 같은 조사에 비해 4% 포인트 상승하며 50%를 넘어섰다.

갤럽의 지지율 조사는 대통령에 대한 단순 '선호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와는 다르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46로 7% 포인트 낮았다.

집권 7년을 맞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완패한 직후 가장 낮았지만, 그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8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그의 지지율은 민주당 성향 조사대상자들에게서 9% 포인트 오른 것을 비롯해 공화당 5% 포인트, 무당파 11% 포인트 상승하는 등 정치성향

에 상관없이 폭넓게 개선돼왔다. 갤럽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몇 달간 경찰과 인종적 소수자들과 같은 다양한 공동체들과 소통하려 한 점이 지지율 상승과 관련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에 나서며 미국 내 히스패닉계로부터의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볼티모어 사태 등으로 격무에 시달린 경찰들과의 소통,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법안 처리를 위한 의회와의 대화 등 노력이 평가받았다는 게 갤럽의 대체적 분석이다.

특히 갤럽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가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등 2명의 전임 대통령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차에 연평균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부시 전 대통령도 임기 초반 지지율이 정점을 찍은 뒤 재집권 이후 급격히 추락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 오히려 반등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shin@yna.co.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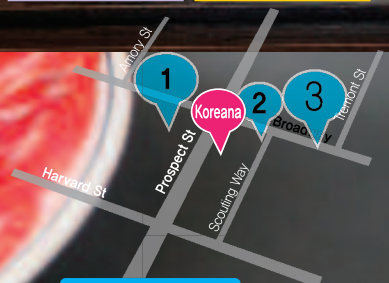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무코타
트리트먼트**

디지털 펌
매직 펌
케라틴
레귤러 펌
하이라이트
헤어컷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조국, 야 혁신위원장?...문-안 회동 논의 전

문재인 "최고위에서 내부인사로 의견 모아져 안 전 대표가 우선"

조 교수 자천타천으로 위원장에 거론...오후 최고위서 논의 될 듯

(서울=뉴스1) 박태정,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지난 19일 문재인 대표와의 단독 회동에서 당 내홍을 수습할 초계과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를 추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문 대표와 안 전 대표와의 회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문 대표의 요구에 "말기가 좀 어렵다"며 고사 의사를 밝혔다. 문 대표는 이에 "좀더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안 전 대표는 "알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문 대표와 안 전 대표는 회동에서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적합한 외부인사에 대한 의견도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안 전 대표는 조국 교수가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다고 문 대표가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표는 외부인사는 최고위에서 전혀 논의된 사항이 아니고 안 대표는 이미 최고위에서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서 외부 인사보다는 안 전 대표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전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청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가 어제 단합과 혁신에 공감하고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조국 교수를 추천했다"고 재확인했다.

문 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앞으로 안 전 대표와 혁신기구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가 전날 안 전 대표가 위원장직 제안을 고사했음에도 이날까지 거절이 아닌 유보적이라고 판단한 이



조국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형제도 폐지와 그 대안' 19대 국회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교수는 당 안팎에서 자천타천으로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거론돼 왔다.

조 교수는 최근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새정치연합의 혁신 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권한을 준다면 또 그러한 혁신 내용에 동의한다면 제가 (위원장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교수는 19일에는 트위터에 "문재

인,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 해야 한다"면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친노(친노무현)건 호남이건 모든 기득권을 잘라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새정치연합의 내년 총선·공천 혁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이날도 트위터에 "새정치 혁신위원장은 누가 하더라도 좋다. 최고위, 중앙위, 당무위, 의총 등에서 기득권 포기선언을 하고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기 살을 베어낼 것이 분명한 혁신 약속만이 감동을 준다"고 적었다.

새정치연합은 안 전 대표가 혁신기구 위원장직 제안을 최종적으로 거절함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다시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열고 위원장직 후보에 조국 교수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ptj@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 Quincy College
-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MAY 22ND - MAY 28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Memorial Day MEAT FEAST

ENJOY A HEARTY, HEALTHY, & HAPPY BBQ WITH YOUR FAMILY & FRIENDS THIS MEMORIAL DAY!

100% PREMIUM QUALITY 메모리얼데이 바베큐도 역시 마트와 함께 준비하세요!



KINGSFORD MATCH LIGHT CHARCOAL
 킹스포드 매치 라이트 차콜
\$8.99
 11.6 lbs.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불고기용 냉동 돼지고기
\$5.99
 lb.



FRESH 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6.99
 lb.



BONELESS BEEF RIB EYE STEAK
 뼈없는 소등심 스테이크
\$9.99
 lb.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냉동 삼겹살
\$5.99
 lb.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CT BUTT STEAK
 양념 돼지 목살 스테이크
\$5.99
 lb.



EVERYTHING TASTES BETTER WHEN IT'S JINGA

Handcrafted with the freshest and healthiest ingredients.
 엄선된 식재료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있는 식단까지 고려한 진가의 건강 반찬들을 맛보세요.





Organic goes BIG

BIGGER PACKAGE MEANS MORE ORGANIC!

건강 시킴이 유기농정 곡물제품이 큰 사이즈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12 lbs. PACKAGES ARE NOW AVAILABLE!



Available ONLY at Hmart

<p>FRI./SAT./SUN ONLY 22 / 23 / 24 ONLY</p> <p>Atalfo Mango 아탈포 망고 박스 box \$10.99</p>	<p>FRI./SAT./SUN ONLY 22 / 23 / 24 ONLY</p> <p>Watermelon 수박 ea. \$6.99</p>	<p>FRI./SAT./SUN ONLY 22 / 23 / 24 ONLY</p> <p>Seedless Red Grape 씨없는 적포도 lb. \$1.49</p>	<p>Plum Tomato/ Tomato 5x6 플럼 토마토/ 토마토 5x6 lb. \$0.99</p>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p>	<p>FROZEN</p> <p>Golden Crab 골든 크랩 lb. \$5.49</p>
<p>FRI./SAT./SUN ONLY 22 / 23 / 24 ONLY</p> <p>FRESH Uni 성게알 (우니) 2.11oz./pkg. \$6.99</p>	<p>FROZEN</p> <p>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up/lb. \$8.99</p>	<p>FROZEN</p> <p>Cooked Whelk Meat 냉동 굴뱅이살 lb. \$9.99</p>	<p>TONGTONGBAY Jiri Anchovy (Small) 통통배 어린이용 지리멸치 8oz./pkg. \$7.99</p>	<p>MON - THU ONLY 25 / 26 / 27 / 28 ONLY</p> <p>NISHIMOTO Sekka Medium Grain Rice 니시모토 세카쌀 15 lbs. \$9.99</p>	<p>MON - THU ONLY 25 / 26 / 27 / 28 ONLY</p> <p>KOKUHO Extra Fancy Med. Grain Rice (Yellow) 국보 쌀 (옐로우) 15 lbs. \$9.99</p>
<p>PALDO Bibim Men 팔도 비빔면 4.58oz. x 5ea./pkg. \$3.99</p>	<p>HAIOREUM Korean Style Cold Noodles 해오름 냉장 냉면 All Varieties/1.23 - 2.2 lbs. \$3.99</p>	<p>K TOWN Dukboki 케이타운 떡볶이 All Varieties/1.07 - 1.32 lbs. \$4.99</p>	<p>CHORIPDONG Well-Being Roasted Seaweed Laver Set 초립동이 웰빙 3종 도시락 김 세트 0.17oz. x 12ea./pkg. \$3.99</p>	<p>MON - THU ONLY 25 / 26 / 27 / 28 ONLY</p> <p>BADAAECHAN Premium Roasted Seaweed 바다매찬 전장김 선물세트 0.7oz. x 10ea./box \$8.99</p>	<p>MON - THU ONLY 25 / 26 / 27 / 28 ONLY</p> <p>BOHAE Maewon Prime 보해 매원 프리미엄 16.9fl.oz. x 2btlb/box \$14.99</p>
<p>주말시식코너 SAT. SUN. SAMPLING EVENT</p> <p>VITA SOY Soy/Tea/Juice Drink 비타 소이 소이/티/주스 드링크 All Varieties/8.45fl.oz. x 6ea./pkg. 2\$5</p>	<p>HAITAI Bravo Ice Cone 해태 브라보콘 Vanilla/Choco - 4.7fl.oz. x 4cones/pkg. \$5.99</p>	<p>2X More absorbent! BOUNTY Paper Towel 바운티 페이퍼 타월 12rolls/pkg. \$13.99</p>	<p>ARTWARE LILAC Soju Glass Set 아트웨어 라일락 소주잔 세트 4pcs/pkg. \$2.49</p>	<p>ZOJIRUSHI Stainless Steel Vacuum Bottle 조지루시 보온병 SF-CC20XA/2L/ea. \$34.99</p>	<p>HELLO HOME Electric Fan 시원한 바람으로 올 여름 더위를 날려 버리세요~ 헬로홈 스탠드형 선풍기 14"/ea. \$39.99</p>

새 총리에 50대 황교안 법무장관 지명...청 "부패척결 책임자"

"청문회서 정책·업무능력 검증 기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58) 현 법무부 장관이 발탁됐다.

청와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전 총리의 후임으로 황 장관을 지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가 사퇴한 이후 24일 만에 이뤄진 후임 인선이다.

황교안 신임 총리 후보자는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제13기)한 뒤 법무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검찰청 창원지청장과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검찰에 몸을 담았다.

황 후보자는 2011년 검찰을 떠난 뒤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일해 왔다.

이와 관련,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황 후보자는)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쳤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해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사회 전반

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책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 "(황 후보자는) 조용하면서도 철저하고 단호한 업무스타일"이라며 "국정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과 난관을 해결하는데 책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금 우리 현실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가 앞으로 국회 인사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총리에 임명되면 박 대통령이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 과문 이후 부쩍 강조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 근절 등의 정치 개혁 과제 수행에 한층 더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전 총리는 고(故)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 등에 휩싸여 '불명에 퇴진'했다.

청와대는 황 후보자가 앞서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수석은 황 후보자 지명에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자들에게 지명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한 야당의 '공안 정국'·'사정(司正 정국) 조성용이란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인사청문회가 '신상필벌'식이 아닌 정책과 업무수행능력 검증에 방점을 두고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년여 간 법무행정 총괄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등을 이끌어내 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내 인사가 있을 때마다 그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50대의 황 후보자가 총리 후보로 발탁됨에 따라 공직사회와 정

치권의 '세대교체'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50대 인사가 총리 후보가 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당시 58세 나이에 총리가 된 한덕수 전 총리 이후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황 후보자의 총리 후보자 지명에 따라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역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은 필요한 법적·정치적 절차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며 "굳이 늦추거나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상 국무위원인 각 부(部

장관은 총리 후보자가 아닌 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결과는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와 협의를 거친 뒤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조를 받아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신임 총리 후보자 인선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발표 문안 정리가 늦어졌다"(민경욱 대변인)는 이유로 15분 연기했다.

ys4174@news1.kr

여 "황교안, 국무총리에 적합, 부정부패 척결 기대"

김무성 "아주 잘된 인사"...유승민 "잘 해주길 기대"

(서울=뉴스1) 김영신, 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은 21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적합한 인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부정부패 척결 등 국정 과제를 원활히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황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재임 시 언행이 신중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우리 사회를 청렴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 할 사람이다. 아주 잘된 인사"라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잘 해주길 기대한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별 문제없이 잘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eriwhat@news1.kr

야 "김기춘 아바타 황교안 총리, 노골적인 공안통치"

"국민 협박하는 불소통, 불통합 정치...납득 못할 회전문 인사"

(서울=뉴스1) 박태정, 서미선 기자 = 야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함에 대해 노골적인 공안통치 선언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이라면서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독선적 인사"라고 비판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총리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면서 "김기춘 아바타라고 하는 분을 이번에 총리로 임명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부정부패 뿌리 뽑을 책임자가 아니라 부정부패 봐줄 책임을 총리로 내정한 것"이라며 "회전문 인사, 수첩인사도 이 정도면 그 바닥을 다 드러낸 것으로, 이 정권의 인사무능, 인사참사의 절정이다"고 지적했다.

eriwhat@news1.kr

공안검사에서 총리까지...황교안의 걸어온 길

30년 검사 재직동안 공안통 검사로 유명세...정치권엔 발들이지 않아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최장수 장관 중 한 명으로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30여년간 검찰에서 재직하며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이름을 날린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헌법 재판소에 제소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청구를 직접 지휘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황 후보자는 검사 재직시절 차분하고 주변에 온화했으며, 업무에 있어서는 원칙을 중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직 시절에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집필할 정도로 본인의 전문 분야에 꼼꼼하게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황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데에는 이 같은 업무 스타일로 지난 2년간 차질 없이 법무행정을 총괄하면서도 개혁적인 업무성과를 보인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검사 시절 대검 공안1·3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

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건' '임수경 밀입북 사건' 등 굵직한 공안 사건을 맡으며 잔뼈가 굵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던 2005년에는 국가정보원·안전기획부 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유명세를 떨쳤다.

2005년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 사건 당시 '구속수사'를 강하게 주장하다 첫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된 바 있다.

2011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2년 간 활동하던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며 결국 국무총리직까지 눈앞에 두게 됐다.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앞서 총리를 역임한 정홍원 전 총리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에서 활동했던 것과 달리 황 후보자는 정치권에 발을 들인 경험이 없다.

황 후보자는 이날 총리 후보자 지명 공식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seojiba@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반기문 대망론 '북풍'이 제동?

북한, 하루만에 말바뀌
방북 불허

당사자는 정치 관심없다
선긋지만

"방북 성사됐다면 지지율
올랐을 것"
"반 총장 입장에서는
망신 당한 것"

(서울=한겨레) 김경욱 기자 = 20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방문 무산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성완중 게이트에 이어 '반기문표 대권 행보'에 또 한번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반 총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대망론'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이날 무산된 반 총장의 개성 방문은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의 첫 방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안이었다. 반 총장으로서 이번 방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통일 대통령' 이미지도 얻을 수 있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개성공단 방문이 성사됐다면 반 총장의 지지율은 더욱 치솟았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반 총장을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 퇴임 시기가 2016년 12월로, 유엔 사무총장에서 물러나면서 곧바로 대선 시즌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반 총장 대망론을 부채질해왔다.

'반기문 대망론'은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당내에서 각을 세웠던 친박(친박근혜)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은 지난해 10월 반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야권에서도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반 총장 측근들이 반 총장의 야권 대선 출마 문제를 타진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반 총장이 19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여론조사에서 저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확하게 '대선 불출마' 등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가능성을 남겨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정치권 안팎의 전망은 갈린다. 새누리당의 한 친박 의원은 "반 총장의 친박 대선후보론은 '소설'"이라고 선을 그었고, 한 충청권 의원도 "반 총장이 충청 출신이긴 하나, 반 총장을 대선 후보로 생각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한 3선의원은 " '성완중 리스트 사건'에 반 총장 이름이 거론되고, 그가 현실정치 경험이 적다는 점은 악재로 작용할 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명예문학박사(여성학) 학위 수여식에서 학위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이날 새벽 북한의 불허 방침 통보로 무산됐다

능성이 크다"며 "이번 개성공단 방문 불허도 반 총장 입장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울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금의환향' 하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며 "

미리 대권 출마를 선언해 언론 등의 검증은 반기문보다 대선 직전에 깜짝 등장할 공산이 크다. 나온다면 차기 대권 후보가 많은 야당보다는 김무성 대표가 독주하는 여권 후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dash@hani.co.kr



반기문,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

김무성·문재인
박원순·김문수
등 차례로 뒤이어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높은 지지율로 1위에 올랐다.

19일 데일리한국이 창간 1주년을 기념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 총장의 적합도는 36.4%를 나타냈다.

해당 여론조사 질문은 '반 총장까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누가 다음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

반 총장이 기록한 적합도는 2위를 차지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11.2%보다 3배가 넘는 수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

표는 10.3%로 3위에 그쳤다.

특히 반 총장은 연령대로는 20대(41.8%), 지역으로는 대전·충청권(45.0%)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반 총장은 또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지층, 무당파에서도 적합도 1위를 달렸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선 41.8%, 새정치연합 지지층 33.4%, 무당파 31.6%가 반 총장이 적합하다고 지목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4위부터 6위까지는 차례로 박원순 서울시장(7.8%),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4.3%),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3.7%)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유·무선전화 병행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girin@news1.kr

[일문일답] 반기문 "성완중 회장과 특별한 관계 아니다"

"방북이 남북관계에 도움되길"
"남북관계는 당사자 대화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19일 인천시 송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 개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의 평화와 안보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저는 대화의 힘을 믿고 있다. 대화가 유일하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주자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선 "국내 정치는 한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타당하다"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

반 총장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과 친분이 대해 몇 번 만난 적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반 총장은 그러나 북한 방문 및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물 흐르듯 답변했지만 성완중 전 회장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말을 더듬고 미리 준비해 온 답변서를 보고 신중하게 답변하는 등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듯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일문일답.

- 개성을 방문하면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나.

▶제가 목요일에 개성을 방문하면 공단에서 조업중인 기업체를 방문하고 북

측 근로자들도 만나보고 격려할 생각이 다.

개성공단이야말로 남북한 간 장단점을 상호보완적을 활용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지는 내일 선발대가 미리 가서 협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의 이런 외교적 행보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켰다는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 개성공단 방문이 최근 남북 원활하지 못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나.

▶ 남북관계는 70여년 이상 여러가지 변화를 겪어왔다. 남북 간 공동성명이 두 차례 이뤄졌고 어떤 때는 이산가족 문제 등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다 정치적 문제로 부침을 계속해와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에서 지켜보던 남북관계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직접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번에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북측과,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해서 양측의 동의를 얻어 가게 된다. 나의 방문이 조금이나마 남북관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다만 북에도 당부하고 싶다.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긴밀히 하고 개방하면서 북측의 생활여건이나 경제 발전에 더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에 이름이 오

르내리는 데 대한 입장은.

▶ 정확히 말씀드리면 충청포럼 회원으로 제가 몇 번 참여한 일이 있고, (성완중 회장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도 하셨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 있었을 때 여러 차례 만났다.

저는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직분 수행에 최선을 다했고 약 8년 반 동안 사무총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한국 국내정치에 관심을 가진 일이 없다. 그럴 여력과 겨를도 없었다. 성완중 회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와도 국내정치에 대해 협의한 일이 없다. 그런 면에서 제가 성완중 회장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 조카와 관련된 보도를 봤다.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굉장히 민망스럽게 생각한다. 제 조카의 활동에 대해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일도 없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꾸준히 거명되는데...

▶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는 여러가지 면에서 다르다. 국내 정치의 경우 한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생각하며 노력시는 분들이 국민의 판단을 받아 역할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저에 대한 추측이나 제 행보가 어떨지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존엄을 지키며 국제평화와 안전, 인권 보호, 인류의 가치를 위한 중차대한 일에 모든 힘을 바치겠다.

hsb@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파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가족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U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볼/여자컷 30볼/파마 70볼 부터
디지털 130볼 부터/케라틴 매직 220볼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타트업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조윤선 청수석 전격 사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변질 책임"

일부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불거진' 당·청 갈등 책임론' 관측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18일 전격 사퇴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수석이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辭意)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민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사퇴의 변(辨)'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이들)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다"면서 "개혁 과정에 한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과제"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增稅) 문제까지 거론되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이달 초 여야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제시된데 이어, 최근 야당에선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문제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조 수석은 "연금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난비록 사임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국가와 국민만 보고 개혁을 완수해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 선례를 남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조 수석이 이날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과 관련 논의의 변질 등을 사퇴의 주된 이유로 밝히긴 했지만, 여론 일각에선 "여야 간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국민

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 등이 사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조 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당·청 간 '메신저'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조 수석은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 15일 밤 긴급 소집된 당·청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이때부터 그의 거취에 "이상 신호"가 온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수석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그 배경을 놓고) 토를 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답보 상태에 있는 걸 보고 조 수석이 막대한 중압감, 책임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큰 뜻에서 사퇴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수석의 사퇴에 따른 후임 청와대 정무수석 인선과 관련해선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민 대변인)



18일 사퇴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고 밝혔다.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조 수석은 2012년 대선과정에선 박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 출범 뒤엔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아 오다 작년 6월 청와대 비서진 개편 때 청와대 정무수석(차관급)으로 자리를 옮겨 약 11개월 동안 근무해왔다.

한편 민 대변인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논의를 연계하자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협상(내용)은 여야 협상 대표의 몫"이라면서도 "우린 특정 협상안에 대해 언론이 제기한 많은 문제들을 잘 읽고 있다"고 언급, 내심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ys4174@news1.kr

새정치 "조윤선 사퇴, 합의파기 책임 면피용 꼬리자르기"

청, 온전히 합의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길"

(서울=뉴스1) 박태정, 박소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흡한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과 관련 "한마디로 꼬리자르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파기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모양을 만든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동정이 되면서도 (조 수석이) 그런(면피를 위한)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비겁하게 보인다"면서 "이 수순을 보면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정현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 합의를 파기한 장본인은 청와대인데 조 수석을 경질한다고 해서 청와대의 원천적 책임이 면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사회적 대타협 정신으로 돌아가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온전히 합의 처리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청와대가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ptj@news1.kr

김무성·유승민 "조윤선이 책임질 일 아냐"

김·유 "조윤선 사표수리 전혀 몰랐다... 아쉽고 안타까워"

(서울=뉴스1) 김영신, 유기림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당청갈등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한데 대해 "조 수석이 책임질 일 아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날 광주를 방문했던 김 대표는 상경 전 광주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이 당과 청 사이에서 아주 역할을 잘 해왔고 굉장히 꾸준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퇴해 아쉽다"며 "(연금협상 갈등은) 조 수석의 책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협상 결렬은) 국회 선

진화법 때문인데 정무수석이 무슨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며 "본인은 그런 것(책임감)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여야가 어쩔 수 없는 게임으로 가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사퇴가 당청갈등의 반증 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잘된 협상이라고 이미 인정이 됐다"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미 발표가 됐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유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개혁에 기초연금 등 다른 것을 연계한 것은) 야당의 주장인데 그걸 왜 조 수석이 책임을 지느냐"면서 "사퇴 배경 등은 전혀 모르지만 조 수석이 책임질 일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공무원연금 협상에서 새롭게 제시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논의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논의를 안해야하느냐. 논의야 어떤 논의든 국회에서 해야한다"면서도 "논의가 곧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당청 간 조율이 됐느냐는 지적에 김 대표는 "새로운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당청 간 조율은 안했다)"면서 "야당이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국민대타협기구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riwhat@news1.kr

'연금개혁 책임' 사퇴 조윤선은 누구?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18일 전격 사퇴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부터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여권 내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다.

조 수석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91년 제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을 지내기도 했다.

2002년 제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을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08년 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 2년간 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2년 제 19대 총선 땀 서울 종로 출마를 노렸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 대통령에 의해 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에 발탁됐고, 이후 18대 대선에선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경선 캠프 대변인과 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거쳐면서 이른바 '신 친박'계 여성 정치인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현 정부 출범 뒤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된 조 수석은 작

년 6월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통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정무수석을 맡아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대(對)국회 관계 등을 조율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왔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수석 방한시 '영예수행원' 자격으로 부인 팡리위안(彭麗媛) 여사의 의전을 담당해 주목을 받았다.

조 수석은 청와대 입성 이후 자신의 소임을 무난하게 수행해왔다는 평을 들었지만, 올 들어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주요 과제가운데 하나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를 놓고 당·정·청 간 논의가 진행되던 와중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한 여야 간 합의사항이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놓고 당·청 간 '진실게임'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정무라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이날 약 11개월간의 청와대 정무수석 생활을 마치면서 내놓은 '사퇴의 변(辨)'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이들)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다"면서 "개혁 과정에 한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샵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희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식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인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 근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Somerville 5 Family \$ 999,900
연수입 \$78900, 주거 면적 3072 Sq. 업데이트가 많이 됨. (Anderson window, hard oak floors, granite counters, stainless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 unit laundry), 경쟁력 있는 위치.



Brookline 2 Family \$ 1,100,000
Tax\$8490, 주거면적2366sq, 대지면적4892sq, 좋은 학교, 잘 관리 된집, Green line D 근처, Rt 9, 최상의 위치. 물 근처, 5 year Roof, 업데이트 heating system, 창문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세들어 있음, 총 수입 약 55,000, 대지 면적 6555 sq.ft, 년Tax \$5664



Newton \$1,300,000
2가구입주, 연수입\$84,500, 대지면적9229sq ft. 업데이트 많이 되어 있음. 렌트하기 좋은 위치(T 근처), 보스턴칼리지



Newton \$1,999,000
2013년 새집. 최고 학교, 주거면적 5857sq ft. 대지면적 10990 sq ft. 방5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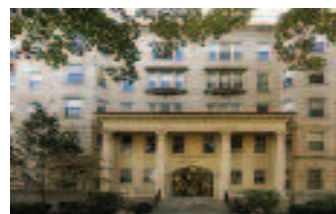
Newton \$999,000
2013년 새집, 방 4개 화장실 3개, 좋은 학교 보기도문 새집 가격, 주거 면적 3850sq ft, 대지 면적8700 sq 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Reading \$ 365,000
2013 새 콘도 분양. 좋은 학교, 편리한 교통, 렌트비보다 저렴한 페이먼트, 방2, 화장실2개, 주거면적 1300sq ft. 30만불대는 한 유닛 남았음. 95 고속도로 근처, Garage Parking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집. 방3개,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5 sq ft. H mart 상권 근처.



Boston Fenway \$ 364,000
방 1개, 화장실1개, 주거면적 576sq 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390,000
2013년 새집 최고의 학교 방4개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48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교,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Epiphany Parish & Corpus Christi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정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울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 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585
office: 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주일 예배: 오후 2:00 금요 모임: 저녁 7:30

이 작은 삶이 많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여니와 (8편 3:18)

담임목사: 우시창
안교회: (781) 715-0571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12station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턴 남부지역
보스턴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보스턴에는 보스턴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턴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견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턴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n@hotmail.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스시 가맹점 안정된 창업



하루 주요 업무

스시바, 스시 제조 및 재고 관리
신선한 스시를 준비하고 패키징 하기
고객 서비스 및 고객과 소통
데모와 샘플링 제공
깔끔하고 잘 관리된 작업장 유지

에이스 스시는 미 전역의 주요 슈퍼마켓 200여 곳에 입점해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현재 급성장 중인 에이스 스시가 함께 성장할 사업체를 찾습니다.
현재 우리는 보스턴 지역에 많은 체인점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매장 설립 및 투자 비용으로 사업주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착순으로 프랜차이즈를 배분하고 있으니 지금 즉시 연락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관심있는 분은 지금 바로 Amy Chuong에게 연락 주세요
Amy.Chuong@acesushi.com 310.327.2223 ext 17

보스턴 **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패츠, 항소 없이 디플릿게이트 처벌 받아들여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로버트 크래프트 구단주가 NFL 사무국에 항소하지 않고 디플릿게이트와 관련하여 팀에 내려진 처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퍼볼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NFL 사무국이 패트리어츠에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NFL 사무국은 지난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패트리어츠가 규정보다 공기압력이 낮은 풋볼을 사용했다는 이른바 디플릿게이트 조사 결과에 따라 패트리어츠와 쿼터백 탐 브래디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패트리어츠는 벌금 1백만 달러와 함께 2개의 드래프트 선택권 박탈을, 브래디는 2015 시즌 4경기 출장 정지를 처분을 받았다.

브래디는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NFL에 항소할 상태다. 패트리어츠는 브래디와 별개로 팀 차원에서 항소를 할 수 있었으나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NFL 스프링 미팅 중 기자회견을 가진 크래프트 구단주는 “지난 4개월 동안 계속 되어온 말장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며 “내키지는 않지만 우리 팀은 (NFL에서 내린 처분을) 받아들

이고 더 이상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크래프트 구단주는 질문도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브래디의 항소가 어떻게 진행될지, 4경기 출장 정지 처벌이 줄어들거나 없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크래프트 구단주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패트리어츠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패트리어츠에게 내려진 1백만 달러의 벌금은 NFL 역사상 한 팀에 내려진 최대 액수의 벌금이다. 또한 2016년 드래프트 1라운드 선택권과 2017년 드래프트 4라운드 선택권 박탈은 팀의 미래를 빼앗는 강력한 징계다.

디플릿게이트에 대한 조사를 담은 웰스 보고서가 발표되자 패트리어츠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반박 보고서를 통해 패트리어츠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크래프트 구단주는 결국 NFL과 싸울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패트리어츠는 8년 사이에 두 번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팀이 되었고, 8년 동안 두 번이나 드래프트 1라운드



로버트 크래프트 구단주는 패트리어츠에 내려진 NFL의 징계를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선택권을 박탈당했다. 패트리어츠는 2007년에도 상대팀의 수비 사인을 비디오로 촬영한 스파이게이트 사건으로 벌금형과 함께 1라운드 드래프트 선택권을 빼앗겼다.

패트리어츠 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플릿게이트는 마녀 사냥이고 패트리어츠가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크래프트 구단주

의 백기 선언과 함께 패트리어츠가 부정행위로 풋볼의 바람을 빼서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되었다.

크래프트 구단주는 “(디플릿게이트 조사 보고서에는) 확실한 증거도 전혀 없고 모든 것이 경기 정황에 대한 것 뿐”이라고 말을 했지만 NFL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브래디의 항소 결과다. 로저 구델 NFL 사무총장은 “결정은 크래프트 구단주가 한 것이다.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를 존경한다”며 “크래프트의 결정이 탐 브래디의 항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브래디를 통해 직접 듣고 싶다”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턴 한인야구리그 5라운드 경기 소식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지난 16일 열린 보스턴 한인야구리그의 제5라운드 경기에서는 브룩라인 빌리버스와 뉴잉글랜드 에이스가 각각 승리를 거뒀다.

체스트넛힐 소재 캐시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이날 5라운드 매치는 오전의 브룩라인 빌리버스(Brookline Believers)와 매스 워리어스(Mass Warriors), 오후의 뉴잉글랜드 에이스(New England Ace)와 캠브리지 바나나스(Cambridge Bananas)의 경기로 구성되었다.

제1경기는 난타전 끝에 BB가 MW전을 12-8로 승리했다. BB는 7회까지 아슬아슬한 경기를 펼치다가 8회 대거 5득점에 성공하며 MW를 제압했다.

BB의 선발 이승원 선수가 2이닝 동안 3삼진을 잡고 단 1실점만을 내주며 MW타선을 푹푹 묶었다.

이후 교체된 두번째 이신형 선수가 난조 속에 0.2이닝 동안 3실점을 하며 MW에게 경기를 내주는 듯했

으나 이후 등판한 데이비드 황 선수와 폴 유 선수가 각각 3.1이닝과 3이닝 동안 4실점을 틀어막으며 승리의 기반을 다졌다.

타선에서는 1번 타자 앤디 황 선수가 2루타 포함 4타수 2안타 3득점 2타점 1볼넷의 리드오프다운 활약으로 승리를 수훈선수가 되었다.

MW의 타선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나 장타력 부족과 단 2명의 투수로 9이닝을 막다보니 후반 뒷심에서 밀려 아슬아슬한 경기를 손쉽게 내주고 말았다. (승: 폴 유, 패: 이창화)

오후에 펼쳐진 2경기에는 NEA가 안정적인 투수운영과 타선의 집중력으로 15:7 대승을 이뤄냈다.

NEA의 선발 이규연 선수가 5이닝 동안 4실점으로 CB의 타선을 깔끔하게 막았지만 이어 등판한 오재룡 선수가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하며 3실점을 기록해 분위기가 기우는 듯 했다.

하지만 상대팀에 비해 투수의 여유가 있는 팀인만큼 이어 등판한 김



오후 경기에서 홈런을 친 NEA단장 김원석 선수

원석 선수와 폴 추 선수가 4이닝을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아내며 승기를 잡았다.

투수로 좋은 활약을 펼친 이규연 선수의 활약은 타석에서도 이어졌다. 이규연 선수는 이날 홈런 홈런 포함 5타석 2안타 3득점 4타점 2도

루로 투타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하며, 수훈선수로 선정되었다.

이날 양팀의 안타수와 에러 차이는 얼마 나지 않았다. NEA가 15개, CB가 11개의 안타를 만들었고 각각 9개의 에러를 범했다. 점수 차이가 크게 날 기록은 아니

었지만 투수력과 득점권의 상황에서 보인 타자들의 집중력의 차이가 15대 7의 점수 차이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승: 이규연, 패: 박장훈, 세이브: 김원석)

bostonkorean@hotmail.com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제품

어머님&아버님 선물로 안성맞춤

효도 라디오

- 숫자버튼을 이용한 초간편 사용법
- USB메모리, TF카드 (MICRO SD)에 저장된 MP3파일 직접재생
- 고성능 FM라디오
- 스마트폰, 노트북, 넷북, MP3플레이어등의 스피커로 사용가능
- 비상용랜턴 가능
- 탈착식 리튬이온 충전배터리
- LED디스플레이 (FM주파수, 음악재생시간, 곡 번호 표시)
- 이어폰단자 채용 (스테레오)
- 3W파워스피커 + 3W 하이브리드 우퍼채용
- 핸드스트랩 기본장착



- 한국 가요
- 트로트
- 성경 찬양가

\$69

(가요5200곡 또는 성경&찬송가 택일)

\$79

(가요5200곡 + 성경&찬송가)

주문 전화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마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49,900
Sharon, MA
3 Beds, 2.5 Baths, 2460 sf.
Private Wooded Back Yard
완벽한 집,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599,900
Sharon, MA
2 Beds, 3.5 Baths, 1969 sf.
Custom Built, Water Pool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37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1352sf.
New metal roof 2012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제니스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s, 3498sf.
Maintained 2002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525,000
Canton, MA
3 beds, 2.5 baths, 1848 sf.
Charming cape in a great
Convenient Location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625,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420,000
Boston, MA
1 Bed, 1 Bath, 474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229,000
Chelmsford, MA
3 Beds, 2.5 Baths, 1071 sf.
많이 업그레이드 된 타운홈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50,000
Amherst, MA
한국에서 오래 장사한곳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High traffic main road
399 seat, Full Liquor License
Sue Rong Tsai 617-792-8842

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Beauty School
\$135,000
Woburn, MA
좋은 시설, 편리한 장소
Gina Choi 978-866-3248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Turn Key Business
26년동안 잘 운영된 비즈니스
Kwang O. Kim 617-792-8615

Condo Rental
\$1,525
Acton, MA
2 Beds, 1bath, 820sf.,
안전하고 좋은 학군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모든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됨 / 모든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됨 / 모든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됨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Restaurant



\$547,9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690,0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병원건물



\$890,000
Worcester, MA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70,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Sushi Bar



\$90,000
Newton, MA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20,000
Boston, MA
Beer & Wine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i 617-792-8842

Beauty Service

\$100,000
Newton, MA
A turn 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3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Chris Ferron
978-905-9014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상징한 생어와 훈마구로 참치, 방어, 흰푸나, 레드스네피,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부침과 배운탕까지

스시와 롤:
상징생어, 훈마구로 참치, 스크티시 셀론, 라마제,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롤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얼스톤에 위치한
최의 오빠스시에서
상징하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1 No.21 May 22 2015

발행처 : The Boston Korea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크림업스 아이스크림

포무(Fomu)

업소탐방 288

포무(Fomu)

481 Cambridge St, Allston, MA 02134
617-903-327
fomuicecream.com

연타비 100% (TV) (Play) (로) (새) (로) (해) (나) (다) (들) (은) (서) (로) (만) (에) (보) (안) (정) (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하는 한국 방송 언하는 시기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공급업이 티보를 시청하세요

시니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4월 30일까지(2년 역행시)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우유 대신 코코넛 밀크를 이용한 아이스크림이 올스톤에서 인기가. 코코넛 과육으로부터 얻은 흰 빛깔의 코코넛 밀크는 우유 못지 않은 풍부한 맛을 내면서 달콤하기까지 하다.

올스톤에 위치한 포무(Fomu)는 20가지 이상의 맛을 자랑하는 아이스크림부터 베이커리, 커피까지 모든 제품에 우유 대신 코코넛 밀크를 사용한다. 코코넛 맛이 강하지는 않지만 아이스크림 베이스로 사용된 만큼 은은하면서도 유니크한 맛을 낸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 코코넛을 좋아하는 사람 혹은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무의 매력에 빠질 듯.

무엇보다 포무는 인공색소나 화학물질을 전혀 첨가하지 않는다. 디나 잘랄(Deena Jalal) 사장은 “두 아기의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먹일 수 있는 ‘건강한 아이스크림’ 을 만들고 싶다” 고 전했다.

가령 캐롯 케이크(Carrot Cake) 맛 아이스크림을 위해 디나 사장은 직접 당근을 삶고 갈아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설탕이나 코코넛 밀크도 검증된 좋은 재료만 쓴다는 것이 디나 사장의 말이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지만 곧 아이스크림에 빠져 살게 될 것” 이라는 디나 사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먹어도 걱정이 되지 않을 만큼 건강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고 자부한다.

포무의 가장 인기있는 아이스크림으로는 솔티드 카라멜 (Salted Caramel), 카르다뎀 피스타치오 (Cardamom Pistachio), 초콜릿 푸딩 (Chocolate Pudding), 초콜릿 페퍼민트 쿠키 (Chocolate Peppermint Cookie)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시즌마다 새롭게 출시되는 맛이 있다. 여름 피킹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복숭아(Peach), 애플 사이다 (Apple Cidar), 베리 크럼블 (Berry Crumble) 등의 상큼한 과일 맛이 출시될 예정이다.

아이스크림 사업에 뛰어들기 전, 디나 사장은 남편과 함께 마케팅 회사에 다녔지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었다. 디나 사장 부부는 ‘뭔가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다’ 는 생각을 했고 디저트, 특히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반영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리게 되었다.

“(포무는) 3년전 올스톤에 처음 들어섰다. 개업 첫날부터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고 회상한 디나 사장은 그로부터 1년 뒤 자메이카 플레

인에 2호점을 냈다. 아담한 사업이지만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부부다.

포무는 유대인 손님을 위해 얼마 전 코셔 인증까지 받아 유대인 손님도 부쩍 늘었다.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코셔 제품을 찾는 유대인 손님도 모두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다” 고

포무 올스톤점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다.

dyoo9146@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에배 1PM, 담임목사 유영일

bgabc.org
홈페이지에서 설교, 찬양 영상 열어 설교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9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8.6434
global ark baptist church in malde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남씨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메이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도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청사	617-635-4500
보스턴청사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교도연맹	978-407-7554
국제대한교도연맹(한국)	603-898-8201
뉴잉글랜드교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맹	978-902-8305
NE교역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자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탈리아도인협회	978-514-3399
한인학교협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리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산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7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미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17-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치 앤젤교회	978-274-2369
엘프리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프리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타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5596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터플라워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보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안구정중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론퍼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Bl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역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3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	--------------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	--------------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종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러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뷰티	617-871-1482
퀵시스타치과	617-471-2184
퍼스트우치스덴탈그룹	781-391-5606
프롬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	--------------

미스터플라워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네틱(Natick)에 있는 세탁소에서 프레스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508-655-5004

린(Lynn)에 있는 세탁소, 셔츠프레스서 구함 (오후 3시 이후에도 가능하신 분) T. 617-840-1833

렉싱턴소재 한일식 식당 웨이추레스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구함. T. 781-860-0171

주방보조 풀타임 일하실 분 구함 치코피 지역 한식당 T. 413-262-3218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For Sale – Nail & Spa

Owner retired, Well established Nail & Spa in business 15 years. 6 tables, 4 spa chairs, 3 facial/waxing room, Modern elegant decor. Steady clientele, Big cash flow. Clients list included. Asked for 85K.
Buyer call 781-329-2716 English or Chinese

**For Sale
Dry Cleaner
Brookline CollidgeCorner**

Well established customer and road based (since 1959) New "Eco-Friendly" dry cleaning machine. Asking \$299,000
Contact Carl T.617-577-9872

보스톤 북쪽 지역 일식당 매매 16년 된 식당, 연매상 \$700,000 T. 978-494-2712

하우스 매매

웨스트우드(Westwood) 4베드룸, 3 배스, 1층 랜치.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 1.3에이커의 대지. 32Meadowbrook.com 가격 \$749,000
리맥스 홈팀 617-933-9778

N[매매]
올랜드 디즈니 인근 주유소 판매 디즈니 방향8차선 교차로 로컬몰 진입로에 위치, 일일통행량 8만대 이상 100% Absentee Owner로 운영중 순이익 \$10,000/월, 판매가 \$250,000 lifeisgoodfl@hotmail.com T. 863-800-0109

N[구인]
용모 단정하고 성실하신 여성분 기본급+TIP(고수입보장) 단골손님 많고 오래된 Bar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오래 일하실분 T. 470-428-1010

N[매매]
매사추세츠 주 스프링필드 10분거리 풀 플랜트, 30년 운영 세탁소 주인 은퇴, 매매가 \$85,000 건물 매매도 가함. 렌트 시 월 \$1,500 T. 413-271-4357

N[매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몰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면적 1,600sf T. 931-241-0415

N[매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공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했습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매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썬 천일염, 인디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매매]
메이컨조지아 근처 동양마켓겸 한식당매매 연매상 1밀리언 이상 건강상의 문제로 성공중인 한국마켓 및 안에 있는 한식당매매 현재 일하시는 분 7명 확실한 매상 수입, 전화문의 및 방문 환영 T. 615-714-8016

N[매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N[매매]
샬롯, NC 일식당 매매 히바치 16 그릴 스키바 7,000 SF 단독건물 좋은 조건에 팝니다 T. 406-259-6211

N[매매]
치킨링, Fish(생선) 튀김가게 렌트비 월\$1,600, 면적 1,400 SF 좋은 로케이션, 주변 식당들이 모두 잘 됨.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 웨딩빌 장비는 거의 새것임 매매가격: \$70,000 T. 910-868-4499 (11AM - 7PM 까지)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o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치즈인더트랩' 박해진, 엄청난 싱크로율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 뉴스티미 = 박해진의 '치즈인더트랩' 출연 소식이 캐릭터 싱크로율이 다시 한 번 화제다.

20일 제작사 에이트웍스에 따르면 박해진은 최근 웹툰 '치즈인더트랩'의 드라마화에 출연을 확정했다.

'치즈인더트랩'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연재 중인 인기 웹툰이다. 박해진이 맡은 유정은 외모와 집안, 학점, 패션까지 모든 게 완벽한 엄친아지만 친절하고 상냥한 얼굴 뒤에 섬뜩한 이면을 가지고 있어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다.

웹툰에서 유정은 '치즈인더트랩' 여주인공인 홍설과 오해로 초반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연인으로 발전해 캠퍼스 로맨스를 선보였다. 홍설에게 유정이 고백할 때 "문어든 말보다 앞으로의 말이 듣고 싶어"라는 대사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박해진은 '치즈인더트랩'이 드라마화 된다는 소식이 들리기 전부터 누리꾼들과 팬들 사이에서 남자 주인공 유정役に 캐스팅 1순위로 꼽혀왔기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해진의 소속사 더블유엠컴퍼니 한 관계자는 "유정역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팬들의 응원에 결국 자신만의 유정을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결정에 후회하지 않고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근성으로 이 작품에 임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치즈인더트랩" 드라마 빨리 보고싶다", "'치즈인더트랩' 드라마 재밌게 만들어졌으면", "'치즈인더트랩' 역시 박해진이 해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ppbn@news1.kr

이하늬, 오일 마사지로 관리한 몸매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이하늬가 이국적 풍경에서 섹시함을 풍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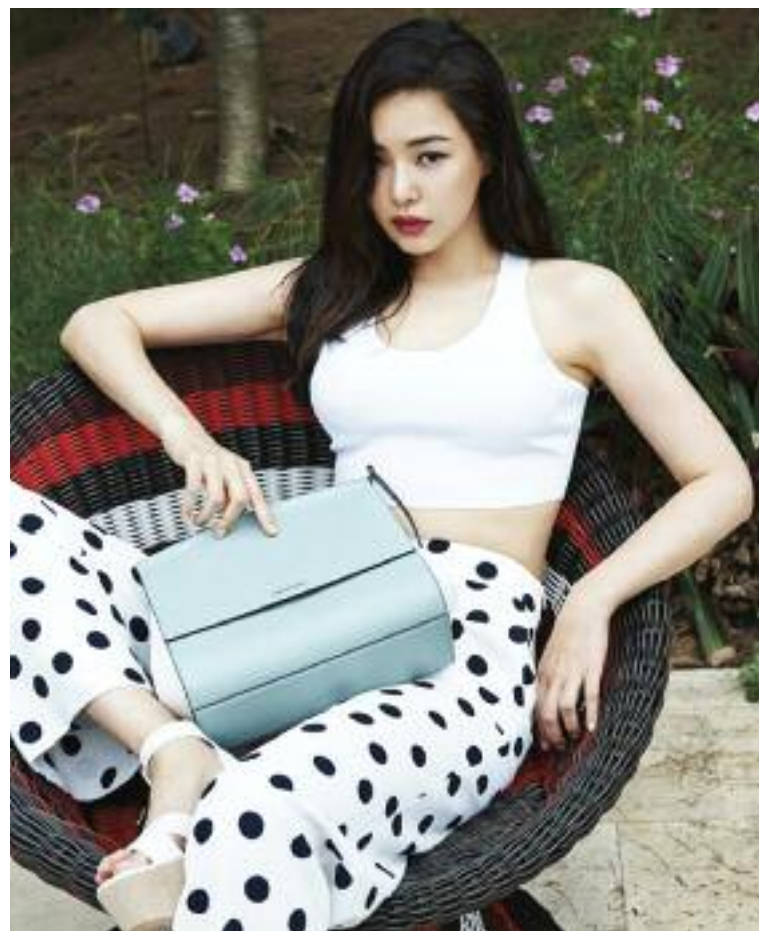
21일 공개된 이하늬의 코스모폴리탄 화보는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됐다. 이하늬는 자신의 순수하면서도 관능적인 매력을 한껏 드러내는 썸머 리조룩을 선보였다.

그는 글래머러스한 보디라인을 돋보이게 하는 화이트 슬릿 드레스를 입고 여신 같은 모습을 보여줬으며 화려한 패턴의 크롭 톱과 플리츠스커트를

입고 볼륨감 넘치는 몸매를 뽐냈다. 또 여성스러운 스커트 슈트 안에 브라톱을 매치해 반전 매력을 발산했다.

이하늬는 지난 '갯잇뷰티 2015' 방송에서 몸매 비결로 오일 마사지를 언급해 화제가 됐다. 그는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고 우아한 보디라인 관리를 위해 "밤마다 잠들기 전 몸에 오일을 바르고 유선, 목선까지 마사지한다"고 밝히면서 "민망하지만 다 벗고 한다"고 고백했다.

ppbn@news1.kr



'복면검사' 주상욱, 복면 쓰고 범인 찾아가는 이유?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 뉴스티미 = '복면검사'가 복면을 쓰는 이유가 공개됐다.

지난 20일 밤 10시 첫 방송된 KBS2 새 수목드라마 '복면검사' (극본 최진원 / 연출 전산 김용수)에서 하대철(주상욱 분)은 유민희(김선아 분)가 검거한 폭행사건 범인이 권력자 지인의 처남이란 이유로 불구속 입건을 결정했다.

유민희이 분노하자 하대철은 "증

거가 없다"며 맞섰다. 사건이 종료되는 듯 했으나 홀로 남은 하대철이 복면을 쓰고 범인을 찾아가는 반전 전개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하대철은 범인의 죄목을 조목조목 읊었고, 이후 "신원이 확실하고 거주지가 일정한 자는 구속수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복면을 썼다.

복면을 쓴 하대철은 범인을 찾아가 주목을 휘둘렀고, "왜 이러느냐"는 범인의 반응에 "열 받으니까"라

고 말하며 구타했다.

하대철은 "범이 못 잡으면 내가 잡는다. 주먹으로"라고 말하며 통쾌한 활약을 예고했다.

'복면검사'는 검사라는 신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로 주상욱과 김선아 외에 배우 전광렬, 엄기준, 황선희, 박영규, 홍석천, 김병준 등이 출연한다.

lee1220@news1.kr

'동상이몽' 유재석, 김구라 아랫턱 잡고...

"귀여워 죽겠어"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유재석이 김구라의 턱을 잡았다.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측은 21일 유재석이 김구라의 턱을 잡고 애정표현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유재석과 김구라는 5회째 호흡을 맞추고 있다. 눈에 띄게 착해지고 있는 김구라를 느낀 것인지 유재석은 녹

화가 시작되자마자 이어진 김구라의 착한 멘트에 김구라의 아래 턱을 부여잡고 "아주 귀여워 죽겠다"며 세차게 흔들는 돌발 행동을 보였다.

또 게스트로 출연한 서장훈이 자신의 유행어 "단정 짓지마"를 남발하며 김구라를 궁지에 몰아넣자 김구라와 한마음 한뜻으로 "서장훈 씨도 단정 짓지 말라"며 역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는 오는 23일 저녁 밤 8시 45분 방송된다.

ppbn@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5월 11일 ~ 5월 17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1.7%
1	KBS2	주말연속극(파랑새의집)	21.7%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16.6%
4	KBS1	KBS9시뉴스	16.0%
5	MBC	일일특별기획(압구정백야)	15.8%
6	MBC	MBC아침드라마(폭풍의여자)	14.4%
7	KBS1	가요무대	14.2%
8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3.3%
9	KBS2	일일드라마(오늘부터사랑해)	13.0%
10	KBS2	해피선데이	12.8%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일일특별기획(압구정백야)
2	KBS2	아침드라마(그래도 푸르른 날에)
3	MBC	일일연속극(불굴의 차여사)
4	MBC	MBC아침드라마(폭풍의여자)
5	SBS	일일드라마(달려라 장미)
6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7	SBS	월화드라마(풍문으로 들었소)
8	SBS	그것이 알고싶다
9	KBS2	금토드라마(프로듀사)
10	SBS	드라마스페셜(냄새를 보는 소녀)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LOSER	BIGBANG
02	BAE BAE	BIGBANG
03	Me You (Feat. 백예린 Of 15&)	San E
04	아예 (Ah Yeah)	EXID
05	어머님이 누구니 (Feat. 제시)	박진영
06	Who Are You (Feat. 개코)	보아
07	다른 남자 말고 너	미쓰에이
08	연예할래	박보람
09	Puss (Prod.by 라이머)	지민, 아이언
10	두사랑 (Feat. 매드클라운)	다비치

숫자 퍼즐 (Sudoku)

	5			8				
4	1				5			3
3			6			5		7
		4					6	
6			4	9	7			8
	3					7		
9		8			4			5
	4		5				8	9
				1			7	

5월 24일 - 5월 30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현상유지에 만족해야</p> <p>● 운수: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걸으로는 아쉬울 것이 없고 행복이 가득 차 보여도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고뇌와 고민은 있는 법입니다. ● 금전: 재물을 탐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현상유지에 만족해야 합니다. 새로운 투자나 확장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세요. ● 애정: 어긋남의 연속입니다. 뭔가 맞지 않는 만남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5, 28일 길일, 27, 30일 주의.</p>	<p>소띠 희소식이 따르겠고</p> <p>● 운수: 구름이 걷히고 밝은 해가 비추는 운세입니다. 전망이 보이니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개업 하기에 좋은 때가 왔습니다. 이전이나 확장 등에서 희소식이 따르겠고 경제 운이 향상되어 금전 수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 애정: 출산이나 결혼으로 집안에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서로의 애정이 더욱 더 깊어질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4, 29일 길일, 28, 30일 주의.</p>	<p>범띠 새로운 각오로</p> <p>● 운수: 적성에 맞지 않거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직장이나 사업은 과감히 청산하세요. 새로운 각오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주중에 나갔던 돈은 일부만 들어오겠습니다. 하찮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을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애정: 애정문제는 결론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과감한 결단과 행동만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8, 30일 길일, 24, 29일 주의.</p>
<p>토끼띠 때를 기다리면서</p> <p>● 운수: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해서 다된 일을 스스로 망가트리지 않도록 감정조절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때를 기다리면서 실리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변화로 금전문제와 관련해서 다소 곤란을 받았으나 차차 해결되어갑니다. ● 애정: 남에게 의혹을 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사를 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26, 28일 길일, 24, 30일 주의.</p>	<p>용띠 뜻하지 않은 지출이</p> <p>● 운수: 직장 일이 잘 풀리고 있지만 리더십을 발휘해서 협력세를 만들어 두면 장래에 가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전: 뜻하지 않았던 지출이 있겠습니다. 기분에 따라 지출하지 않도록 마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을 확신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가 더 강한 끈으로 연결됩니다. 이제는 그 어떤 방해가 들어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4, 26일 길일, 25, 29일 주의.</p>	<p>뱀띠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고</p> <p>● 운수: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다가 멀지 않아서 많은 상황이 퇴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금전: 불필요한 금전적 지출이 없도록 잘 살려야 합니다. ● 애정: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고 분명히 할 때입니다.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5, 30일 길일, 24, 26일 주의.</p>
<p>말띠 시원하게 풀려나가</p> <p>● 운수: 마음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추진하는 일이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 금전: 가까이에 도움을 주는 귀인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마다 시원하게 풀려나갑니다. ● 애정: 색다른 느낌을 주는 좋은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성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의욕적인 생활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6, 29일 길일, 24, 27일 주의.</p>	<p>양띠 만족한 결과를</p> <p>● 운수: 추진하는 일이 금방 성사되지 않더라도 단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의를 다한다면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계약이나 매매는 생각했던 금액과는 차이가 나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 애정: 오래 지속되어오던 만남이 좋은 결실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이 합쳐지니 결혼을 하기에 갈만한 때가 왔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7, 30일 길일, 24, 25일 주의.</p>	<p>원숭이띠 소망을 이룰 수 있는</p> <p>● 운수: 보통 때보다도 말과 행동을 특히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대인관계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금전: 금전으로 인한 분쟁이 따르더라도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화해를 청해줄 것입니다. ● 애정: 높은 산에 피어있는 에델바이스처럼 고귀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24, 28일 길일, 26, 29일 주의.</p>
<p>닭띠 앞날에 대한 희망이</p> <p>● 운수: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니 기운이 납니다. 전망이 있는 호의적인 제안도 들어옵니다. ● 금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물을 손안에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 애정: 상대도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이쪽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해주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28일 길일, 24, 27일 주의.</p>	<p>개띠 심기일전해야</p> <p>● 운수: 이럴 때일수록 정서적으로 편안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거나 예술적인 분야 등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에 자신감을 갖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점차적으로 풀려나갑니다. ● 애정: 이성 관계에 전환기가 옵니다. 속을 태우던 혼사나 오해 속에 있던 연인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30일 길일, 25, 28일 주의.</p>	<p>돼지띠 따뜻한 대화와 애정이</p> <p>● 운수: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태라 할지라도 마음만이라도 밝게 가져보세요. 점차적으로 일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 금전: 흔들리지 말고 주관적으로 뜻을 펼쳐나가세요. 대인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 애정: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대화와 애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에게 사랑은 비타민이 되어줍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4, 27일 길일, 26, 29일 주의.</p>



백종원 "회식하는 느낌으로 촬영하고 있다"

〈집밥 백선생〉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tvN 예능프로그램 '집밥 백선생'에 출연 소감을 밝혔다.

12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집밥 백선생'의 제작발표회에는 백종원을 비롯해 김구라·윤상·손호준이 참석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백종원은 "현재까지 촬영해 본 결과, 카메라가 돌아간 후 10분만 지나도 '촬영 중'이라는 생각이 안들더라. 친한 동생들을 불러놓고 집에서 실제로 요리를 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꾸밈없는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틀테면 '오늘의 주제는 '소고기'라고 공언해도, 결과적으로는 '볶음밥'이 주인공이 되는 재밌는 상황이 나온다"며 "그야말로 술만 없으면 회식하는 느낌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집밥 백선생'은 '요리불능'으로 불리는 김구라·윤상·박정철·손호준 등 네 남자가 백종원의 '백주부 집밥 스쿨'을 통해 끼니 해결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과정을 담는다.

또한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인'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19일 오후 9시 40분 첫 회가 방송된다.

kijez875@news1.kr

유승준 인터뷰, 왜 13년 만에 해명 나셨나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유승준이 인터뷰를 통해 13년 만에 해명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19일 아프리카 tv를 통해 진행된 인터뷰에서 13년 전 병역 기피 사건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는 이유에 대해 "제 심경 고백이나 변명의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들께 제 잘못을 사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코미디 프로에서 나를 소재로 코미디를 하는데 시청자들이 같이 웃더라. 맥락이 미국으로 도망간 계집애에 같은 거였다. 그걸 가족들과 같이 보다가 껴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또 "현실적으로 징집 대상이 아니지만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라고 하면 가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한국 땅을 밟고 싶다. 아이들과 떳떳하게"라고 덧붙이며 눈물을 보였다.

유승준 인터뷰를 접한 누리꾼들은 "유승준 인터뷰, 국가가 거부하는 건 너무한 것도 같다", "유승준 인터뷰, 병역 관련 사건은 너무 큰 것 같다", "유승준 인터뷰, 아이들 얘기는 정말 안타깝네" 등 반응을 보였다.

ppbn@news1.kr



'해피투게더' 빅뱅 지드래곤, 박명수와 다정한 브로맨스

(서울=뉴스1) 온라인팀 = '해피투게더' 빅뱅 출연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지드래곤과 박명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박명수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 동생 gd♡"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지드래곤은 가운을 걸친 채 박명수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로 훈훈한 외모를 자랑해 여심을 사로잡았다.

lee1220@news1.kr



강수지 "김국진, 날 아직도 중학생 취급"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강수지가 김국진과 관계에 의문을 표했다.

강수지는 20일 밤 11시15분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라스)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며 김국진에게 질문을 했다.

강수지는 "오빠를 안지 25년 됐나? 그때부터 나를 중학생으로 생각하고 말을 한다. 문자를 할 때 '~하렴'이라고 한다. 내가 그렇게 어리게 생각되나 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늘 '수고했어. 잘 지내렴

'이렇게 한다. 내가 50이 다 돼가고 있다. 나도 오빠에게 얼마나 정중한 존댓말을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관계가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하다"고 했다.

ppbn@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사' 시청률 상승세, 공감 가득 힐링 드라마

(서울=뉴스1스포츠) 유수경 기자 = '프로듀사'가 공감 가득한 이야기로 무장,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청률 조사회사 님스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방송된 KBS2 금토 예능드라마 '프로듀사'(극본 박지은/ 연출 표민수, 서수민) 2회는 전국 10.3%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첫방송이 나타낸 10.1%보다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날 방송은 '본의 아니게 차통보'라는 부제로 전파를 탔다. 입사 첫 날부터 당혹감을 금치 못한 백승찬(김수현 분)은 집 근처에서 신혜주(조윤희 분)를 만나게 됐고, 라준모(차태현 분)가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한번 더 상처를 받았다. 특히 작은 질투심에 쓰레기 봉투를 사이드 미러에 걸어두고 줄행랑을 치는 독특한 행동으로 웃음을 터트리게 만들었다.

이처럼 준모에 대한 작은 질투심을 갖고 있는 승찬은 준모와 제대로 얽히게 됐다. 해주가 소속된 연애가 중계가 아닌 준모가 메인 피디인 '1박 2일'로 배정된 것. 특히 승찬은 배정 5시간만에 윤여정에게 하차를 통보하는 중요한 임무를 받아 보는 이들을 긴장케 했다.

또한 라준모와 탁예진(공효진 분)이 한 집에 살게 된 이유와 한 집 살이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예진의 전세 완료일과



새 아파트 입주일 사이에 4개월이라는 애매한 시간이 생겼고, 준모는 술에 취해 예진에게 숙식 제공을 약속했다. 특히 이들의 계약 사이에 시청자들을 설레게 만드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처럼 '프로듀사'는 내 주변 어디엔가 있을 것 같은 네 명의 캐릭터들이 본격적으로 얽히며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풀어가고 있다.

uu84@news1.kr

티보플레이 5월 2째주 시청률 BEST 10

- | | | |
|----|-----|------------|
| 1 | MBC | 압구정 백야 |
| 2 | KBS | 그래도 푸르른 날에 |
| 3 | MBC | 불굴의 차여사 |
| 4 | MBC | 폭풍의 여자 |
| 5 | SBS | 달려라 장미 |
| 6 | KBS | 슈퍼맨이 돌아왔다 |
| 7 | SBS | 풍문으로 들었소 |
| 8 | SBS | 그것이 알고싶다 |
| 9 | KBS | 프로듀사 |
| 10 | SBS | 냄새를 보는 소녀 |

티보플레이 5월 2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MBC | 맨드롱 또뚝 |
| 2 | KBS | 오렌지 마말레이드 |
| 3 | CJ E&M | 삼시세끼 정선편 |
| 4 | KBS | 우주를 날다 |
| 5 | KBS | 사하라 사막의 악몽 |

티보플레이 5월 2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워킹걸 | 조여정/클라라 |
| 2 | 신세계 | 최민식/황정민 |

'오렌지 마말레이드' 뱀파이어 세상도 '심쿰 로맨스'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오렌지 마말레이드'가 시청자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감성 로맨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지난 15일 밤 10시 35분부터 1,2회 연속 방송된 KBS2 새 금요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영화 못지않은 감각적인 영상미, 흥미롭고도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눈을 뗄 수 없는 배우들의 활약과 케미가 하모니를 이뤘다.

악몽을 꾸는 설현(백마리 역)의 모습과 꿈이 교차되며 긴장감을 부여, 뱀파이어의 성추행 사건으로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된 지하철 안 등 임팩트 있는 구성의 프롤로그는 시선을 확 사로잡았다. 무엇보다 순수함과 풋풋함이 돋보이는 재민(여진구 분)과 마리(설현 분)의 로맨스 전개는 보

는 이들의 마음을 간지럽히기에 충분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또 뱀파이어와 인간이 평화 협정을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를 배경으로 하지만, 뱀파이어에 대한 인간들의 부당한 억압과 차별 등의 내용을 담아 뼈 있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판타지적 요소이기도 한 '뱀파이어'라는 종족 설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가지만 차별받고 있는 소수의 약자들을 대표로 표현했다.

이처럼 촘촘한 스토리라인과 더불어 감성을 자극하는 적재적소의 요소들은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연출을 맡았던 이형민 감독표 청춘 멜로로 더욱 환상의 시너지를 내 매주 금요일 밤을 오렌지 빛으로 수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reddgreen35@news1.kr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스페셜 이벤트

\$9^{.99}
(첫 3개월)

대상: TBO Play 신규 가입자
내용: 첫 3개월 \$9.99 이후 \$34.99 (정상가: \$39.99)

이동 고객 우대 스페셜

\$29^{.99}

대상: 타사 케이블 고객중 이동을 원하시는 분
내용: 1년 이상 가입시 월 \$29.99 (정상가: \$39.99)

친구(신규 가입자) 소개

한달 무료시청

대상: TBO Play 가입자 중 소개자
내용: 소개 받으신 분이 첫 페이먼트를 한 이후 그 다음달에 소개자에게 한달 크레딧 적용

Clean Site

KBS MBC SBS SBS Plus tvN XTM On Style Mnet O live OCN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레지덴셜 리스팅

- 1. 브루클라인 멀티 패밀리:** Rt 9 Brookline. Chestnut Hill Mall 인근에 위치. 총4,271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3 Mil
- 2. Colonial Single Family:** Newton Chestnut Hill에 위치. 1994년에 완공.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총면적 5,000sqft 이상, finished basement면적 포함. Asking \$1.95 Mil
- 3. Belmont 멀티 패밀리 Duplex:** Belmont High School에서 근접한 거리, 편리한 교통. 3,000sqft. 총6Bed, 2Full and 2half baths. Asking \$750,000
- 4. Watertown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편리한 교통. 2Beds 2Full baths. 1914 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450,000.
- 5. Lexington Single Family:** 1,500sqft. 4Beds 1Full Bath.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sking \$595,000

비즈니스 리스팅

- 1. Brookline 한식/일식:** 총면적 3,300sqft. 많은 유동인구.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350,000
- 2. Cambridge 한식/일식:** 총 면적 1,200sqft.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200,000
- 3. Peabody 중식:** 단독건물. 50+ Parking. Asking \$250,000. Full Liquor.
- 4. Nashua 인근 일식/한식:** NH 단독건물 주차공간 포함. Asking \$175,000. Full Liquor.
- 5. 드롭오프 스토어:** 1,200sqft. 넓은 주차공간, Lots of vehicular traffic. Asking \$35,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800sqft. Asking \$30,000
- 7. 세탁소+드롭오프 스토어:** 최상의 위치. Asking \$1.85 Million. 세탁소 건물 포함.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499회

아프다 말 못하니 더욱 안쓰러운...

이 녀석과 우리 가족과 인연을 맺은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지금 녀석의 나이는 11살이니 강아지 나이에 숫자 7을 곱한다 들었으니 그럼 11x7=77 사람의 나이로 하자면 일흔일곱인 셈이다. 아마도 막내 녀석이 하이스쿨에 막 들어갔을 때쯤일 게다. 삼 남매 중 막내라서 늘 개구쟁이라 누나와 형보다는 엄마에게 야단을 들었던 아이다. 한참 사춘기에 있을 때라 엄마 아빠한테 말대답하는 그런 때였기에 엄마로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때였다. 학교 공부도 형과 누나보다는 처지는 편이었고 친구들이 많아 어울리기 좋아하고 급한 것이 없는 여유로운 성격의 아이였다.

물론, 지난해 5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준비 중에 일하고 있으니 여유로운 성격에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날을 보내고 있다. 이제야 여유로운 성격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좋은 성격이라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한참 공부할 나이에 엄마 마음은 걱정이 일었던 때가 있었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할 그때쯤 지금 우리와 함께 사는 두 살배기 강아지(티노)를 남편이 아는 지인 집에서 키울 수 없다가 데려다가 막내

녀석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로 전해 준 것이다. 강아지를 원했던 막내 녀석에게 강아지를 돌보는 일은 책임지고 맡아서 해야 한다고 약속을 했었다.

그렇게 강아지를 돌보며 막내 녀석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늘 집안에서 막내라 무슨 일을 맡기면 염려스러운 녀석이었는데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차분해졌으며 학교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녀석에게는 정말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 한 3년을 강아지를 열심히 돌보며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되어 강아지와 이별을 했었다. 대학 기숙사에서는 강아지를 키울 수 없으니 그것이 녀석은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렇게 방학이면 집에 와서 강아지를 챙기곤 했었다.

막내 녀석이 대학원 준비하는 동안 2년을 대학 4년 내내 여름 방학이면 일했던 곳(썸머캠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엇그제는 녀석이 좋아하는 영원한 '늙은 강아지'를 썸머캠프장이 오픈하기 전까지 얼마 동안 데리고 있겠다고 데리고 갔었다. 그리고 나는

와싱턴에 볼일이 있어 와싱턴에 가 있는데 연락이 왔다. 아무래도 강아지가 허리가 이상한지 다리가 이상한지 다음날 병원에 데리고 가 봐야겠다고 말이다. 그 다음 날 연락을 받으니 등허리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그 얘길 들으니 아프다 말 못하는 강아지가 더욱 안쓰러운 마음에 가슴이 아팠다.

동물 병원에 다녀온 녀석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무리가 되어 몸을 사리며 지내고 있다. 막내 녀석 따라갔다가 어떻게 하다 다쳤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으니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이제 강아지 나이로 해도 11살이 되었으니 아플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이렇듯 함께 10년이란 세월을 정들어 사니 가족이지 않은가. 그것도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밖에 나가도 늘 나와 함께 집 안에서는 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녀석이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그런 많은 시간을 이 녀석과 내가 함께 나누며 사는 까닭이다.

유난히 강아지를 좋아하는 나는 어려서부터 시골집에 개(일명 똥개)가 두 세 마리가 늘 있었으며 개가 새끼를 낳으면 어머니가 정성

스럽게 새끼 강아지를 돌보시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다. 어린 유년 시절에 강아지를 안고 놀다가 놓쳐서 강아지가 죽었던 일도 있었다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기억도 있다. 늘 강아지는 내 삶에서 언제나 나의 가족이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강아지는 늘 내 곁에 있었다. 가끔 아무도 없으면 강아지와 눈을 마주하고 얘기를 나누고 녀석이 꼭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아 가끔은 눈물도 흘리곤 하는 일을 어쩔까.

요즘은 우리 집 귀염둥이 강아지(티노)가 나이를 먹으니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늙어가는구나 싶어 마음이 썩다. 그 마음이 가슴을 휘도니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도 앞서오는 까닭에 이별이 무섭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 녀석과 이별한 후 다시는 강아지를 사지 않고 싶다고 남편에게 얘기했다. 강아지를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헤어짐에 대한 가슴 아픈 일과 이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 다시 강아지를 사고 싶지 않다고 말이다.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은 말 못하는 이 녀석이 아파하는 것이 안쓰럽고 측은한 것이 가슴 아프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해주지도 못하면서.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담객설閑談客說: **모래시계**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남성남버원이란 흘러간 노래가 있다. 이별의 인천항을 부른 박경원이란 가수가 불렀다. 가사만 소개한다. 일절과 이삼절을 쉬었다.

유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박사 호 붙어야만 남자인가요
대학을 나와 벼슬을 하고 /공명을 떨쳐야만 대장부인가요
나라에 충성하고 정의에 살고 /친구간 의리있고 인정 베풀고
남에게 친절하고 겸손을 하는 /이러한 남자라야 남성 남버원

돈도 권력도 명예도 갖지 못했다고 남자가 아닌 건 아니다. 노래는 진정한 남자는 소박

한 남자라야 한다고 말한다. 평범한 남자가 헛된 공명심에 들떠 과욕을 부린 남자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다. 몽테뉴 말이다. '한적한 삶에서 이행하는 의무도 화려한 삶에서의 의무만큼이나 어렵고 긴박한 것이다.' 남버원 남성이 사는 비법이다.

벌써 이십여년 전이다. 연속극 모래시계가 히트했다. 나 역시 한참을 연속극에 빠져 있었다. 청년 강우석은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젊은 검사는 정의감에 넘쳤고, 강직했으며, 하숙집 딸과 결혼하는 건 가슴이 찡찡했다. 그만하면, 검사가 될 만하다 싶었다. 그만하면, 사법고시란 제도도 나쁘지 않다고 믿었다. 연속극에서 그의 아버지가 들려 주던 당부의 말이다. 가난하고, 힘이 없었다만 가르침

은 엄별하다.

'세상엔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구먼. 옳은 건 백년이 가도 옳은 것이고, 그른 건 천년이 지나도 그른겨. 내 말 알아듣겠냐?' (아버지가 어린 아들 강우석에게 하던 대사 중에서: 모래시계)

현직 도지사가 모래시계 검사의 모델이라 했다. 세월이 흘러, 검사는 국회의원 뺏지를 여러 번 달았고, 정당대표까지 했더랬다. 게다가 이젠 도백道伯이다. 오를만큼 올랐고 모을만큼 모았을텐데, 여전히 배가 고팠던 모양이다. 아니면 돈맛을 알았던가. 권력의 맛을 즐겼던가. 입맛이 씹쓸하다. 하긴 태산처럼 듚직해야 할진대, 그가 너무 가벼웠다. 너무 출렁대는 듯 싶었고, 너무 급했다. 말이 가볍기가 숨털 같더니만, 검은 돈을 먼지처럼 생각했던 모양이다. 게다가 공금으로 집안살림에 보태줬다고 했다. 나랏돈은 눈 먼돈이라 생각했던 모양인 게다. 세상일이 연속극과는

사뭇 다른듯 싶다. 아버지의 훈육이 헛되었다. 그른 일은 수십년이 흘러도 그른 법이다.

주제곡 '백학'은 처연했다. 선곡은 탁월했고, 목소리 뒤에 숨은 약기소리는 깊고 넓게 바닥에 깔렸다.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은데, 마구 후벼 파냈다. 연속극 '모래시계'에 나오던 러시아 노래 말이다. 연속극 마지막 장면이다. 주제곡 만큼이나 인상적이다. 태수가 물었다. 친구 우석이 대답했다.

- 나 떨고 있냐.
- 아니, 너는 괜찮아.
지금은 그 사람이 오히려 떨고 있을 게다. 웃기는 짜장이 다시 떨고 있는 거다. 짜장면이 불어 터지면 먹을 수 없다. 웃기는 짜장이 웃기는 짓을 하면, 웃음도 안나온다. 주제곡 백학을 다시 찾아 들어가 겠다.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태 9:4)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www.newyjh.com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문수사
도범 스님

“등(燈)은 등을 위해 밝히지 않고 어두움을 밝힌다.”

등을 밝히기 전에는 그 밝은 빛을 볼 수 없으며
종도 울리기 전에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등이 등을 위해서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어두움을 아무리 내쫓으려고 해도 쫓겨 가지 않지만
등을 밝히면 어두움은 곧바로 사라집니다.

천만년 어두웠던 동굴도 불빛 하나로 일시에 밝아지듯이
다생광겁의 무명 업식도 깨우침으로 일시에 밝아집니다.
전생사도 현재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그 업도 바뀌어 가고
한 생각을 바꾸면 세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바뀌어야 밝은 세계가 되지
내가 바뀌기 전에는 미혹(迷惑)한 세계 그대로입니다.

연등도 스스로 등을 밝힐 수 없으며
종도 타종을 하기 전에는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어린애나 아직 종교에 인연이 없는 이에게는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인(因)과 간접적인 연(緣)이 어떤 인연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좋은 생각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서로를 위하는 일일수록 보람을 느끼며 모두가 함께합니다.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의해 몸도 그 생각대로 따르고
인격적으로 전환해 갈 때 주위도 좋아지고 밝아집니다.

여러 가지 차별 현상은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과 관계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어떤 이는 허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좋고, 어떤 분은 잘 생겼으며
이와 같은 차별 현상은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원인과 관계된 조건들이 있으며
원인을 찾으려 하면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멀리 보면 태어나기 전이 전생이지만
짧게 보면 지나간 시간이 다 전생입니다.
몸 가는데 그림자 따르듯이 한 생명체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가 지닌 성격, 모양 그리고 겪는 괴로움까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요행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그에 따른
행위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누구나 내일을 모르기에 날마다 기대 속에서
희망의 꿈을 꾸며 살아간다 봅니다.
가치관은 남과 비교해서 오기 때문에 차별심이 생기고
마음이 자주 바뀌는 것은 뜬구름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는 내 안에 있기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통유리로 된 넓은 유리창에 새가 부딪힐 때가 있으며 그것은
빠르게 날다가 유리벽이 투명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유리에 반사된 반대편 숲을 보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뚫을 수 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사람도 환상이나 허욕 같은 헛것에 속을 때가 있으며
철이 들수록 그렇게 살아온 지난날이 되비춰 보입니다.

등불 하나가 넓은 공간을 밝혀주듯이 한 사람의 지혜가
많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줍니다.
그 지혜광명을 밝히는 소원이 저마다 다르며 인과법에 의하면
복 받기 위해선 복 받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개인은 물론이요 온 가족을 위함이며
인연 있는 이웃에게까지 공헌합니다.

부처님 탄신을 봉축하는 의미는 진리를 믿고 배우며 받들어
실천하기 위한 다짐의 행사입니다.

부모형제에게는 은혜와 우정의 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애정의 등을
고마운 분에게는 보답의 등을, 소외된 사람에게는 관심의 등을
병고에 계시는 분에게는 쾌유의 등을, 사업자에게는 번영의 등을
학생에게는 성적우수의 등을,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극락왕생의 등을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비의 등을 기원하는 등을 밝힙니다.

문수사. 도범 합장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82 최흥희와 태권도(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최흥희는 1965년 말레이시아 대사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여 '대한태수도협회' 회장직을 맡았다. 그리고 협회의 명칭을 자신이 묵숨 같이 소중히 여기는 명칭인 '태권도'를 써서 그 협회를 '대한태권도협회'로 개명하였다. 결국 그 사건으로 '태권도'라는 생소한 명칭을 받아드리지 못했던 대부분의 당수도/공수도 골수파들과의 갈등으로 회장직에서 불명예 퇴진하였다.

그 후 그는 정부의 요구로 친선사절단을 인솔하여 서독, 이탈리아, 터키, 아랍연맹,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순방시범 하려서 태권도를 보급하였다. 이 사절단이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하였으며 태권도가 우리의 고유무술이라는 것을 공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66년 3월 22일, 이 날은 태권도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면서 거둔 첫 성과를 이룬 날이자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웅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날이다. 이 날 구 조선호텔에서 그간 최흥희가 시범단을 이끌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전파한 9개국(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서독, 터키, 이탈리아, 아랍연맹, 이집트)

이 모여서 국제태권도연맹(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ITF)을 창설하였다. 이 기구가 우리나라가 주동이 되어 창설한 최초의 국제기구이다. 최흥희의 야심찬 기획인 "태권도를 온 천하에 뻗치라"라는 모토로 그는 죽는 날까지 태권도와 함께 살았다. 물론 이 연맹의 총재는 최흥희가 맡았다. 그리고 1967년에는 각 도장마다 서로 다른 품세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위하여 새로운 품세를 만들었으며(각 관의 공통점을 취하고 상이한 동작은 버리면서 당시에는 가라데의 동작을 많이 차용하였다. 70년대에 많은 도장에서 가라데 품세를 했으며 명칭도 일본어였다. 1987년 전에는 '품세'로 썼고, 그 이후에는 '품새'로도 쓴다) 1968년에 ITF는 29개국을 참가하는 제1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홍콩에서 개최하였다. 1969년에는 팔괘품세가 제정되었으며, 태권도계의 '우리말 용어'를 채택했다. 1970년 그는 오른팔인 남태희와 태권도를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24개국을 순방하며 해외를 떠돌았다.(물론 최흥희는 자신의 삶이 곧 태권도이기에 혼신을 다해 태권도를 보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최흥희는 자신이 국제태권도연맹(ITF)을 창설하여 총재가 되어서 그간 세계적으로 이룩한 업적이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으로 달성되었다고 선전되자 이에 반발하였다. 무엇보다 최흥희는 박정희를 신뢰하지 않았고 존경하지도 않았다. 그의 자서전 '태권도와 나'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 등을 고려해보면 나이는 박정희(1917년 11월 14일생)가 한살 많지만 군수에서는 최흥희(1918년 11월 9일생)가 선배다. 그래서 5.16 군사정변 전까지는 박정희가 최흥희를 '각하'라고 부르며 선배 장군으로 대우했다. 그리고 5.16정변 이후 세상은 변했지만 최흥희의 자존심은 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5.16정변 거사 당일의 소외로부터 시작한 그가 당한 배신감과 불신은 최흥희의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 후 3선개헌의 반대 등 여러가지의 정치, 정책에 반대하면서 반목은 깊어만 갔고 최흥희의 입지는 권력앞에서 좁아져만 갔다.

1971년 1월, 좁아져만 가는 최흥희의 입지는 40세의 젊은 김운용의 해성같은 등장으로 설 자리를 잃었다. 물론 당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극적으로 전환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외교관 출신의 김운용(金雲龍

(1931년 3월 19일 - , 어릴적 그의 꿈은 외교관이였다. 그의 멘토인 외교관 홍재익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1949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며 외교관을 꿈꾸던 그는 이듬해 한국전쟁으로 무산되고 보병장교로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그 후 그는 주미대사관 참사관을 지냈으며, 유엔대표부 참사관 등의 외교관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소환되어 청와대 경호실보좌관을 거쳐 학술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이때 제7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김운용에 대해서는 '태권도와 김운용'편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 제7대 대한태권도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흥희의 주장에 의하면 김운용은 국제태권도연맹(ITF)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사사건건 반대만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운용은 자신의 인맥과 능력으로 협회운영의 입지를 넓히면서 동년 3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으로 부터 친필 휘호인 '국기 태권도'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도계의 각 문파간의 이질성을 줄이면서 그들을 '태권도'라는 무도아래로 모두 모았다. 이것이 태권도의 실질적인 통합이었다.

보스톤한인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출발을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보스톤 한인회의 Slogan(슬로건)을 정해 주세요!



보스톤한인회 Slogan 공모전

슬로건(slogan)은 대중이 집단 행동을 할 때 자신들의 요구와 행동을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해 쓰는 구호나 좌우명(일종의 모토)이다.

- 공모기간** 2015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1달간)
- 공모대상** 한인사회 구성원 누구나 (자격제한 없음)
- 공모방법** 이름, 주소, 연락처(셀폰), 이메일, 성별, 연령층을 기재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한인회의 슬로건을 적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연령층은 (청소년, 대학생, 일반성인, 시니어)로 구분하여 기재
* 시니어는 만 65세 이상
- 상 품** 1등 (1명) : 갤럭시 노트 최신형
2등 (3명) : \$100상당의 상품권
3등 (10명) : \$20상당의 상품권
- 접수처** 우편접수 : 보스톤한인회 (13 Campbell St. Woburn, MA 01801)
이메일접수 : haninhoebo@gmail.com



발표는 2015년 6월 10일 (수요일),
한인회보와 한인회 홈페이지(www.bostonks.com)에 공지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집착하는 '나', '나' 때문일까? '너' 때문일까? (2)
- 좋은 습관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 VIII -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지난번 칼럼 '존 볼비'의 '애착이론'을 통해 어린아이들의 애착관계형성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고려했다. 장난감을 설치한 놀이방에서 떠났다가 돌아온 엄마를 보고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의 관찰을 통해 애착 형성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안정 애착', '회피 애착', '양가-저항 애착', '혼돈 또는 비조직화 애착'을 말한다. 아미르 레빈과 레이첼 헬러는 '그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까닭 (Attached, 2011)'이라는 저서를 통해 어릴적의 애착관계 형성은 성인인 후 인간관계에서 강한 영향 미침을 설명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애착유형이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애착 유형인지 알고 싶다면, 보스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지난번 칼럼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십대 후반의 코드니는 호감이 가는 남자를 만나면 항상 자신이 걸잡을 수 없는 감정 기복에 빠져 힘들게 됨을 호소해왔다.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에게 이러한 감정을 너무 쉽게 느끼는 자신이 너무 싫는데 감정 컨트롤이 힘들다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유능한 직원이고 친구들에게도 인기도 많은데 유독 연애 관계에서는 자신이 없다고 했다.

어린 시절, 그녀의 부모님은 잠시 별거를 했다. 아버지는 내연녀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혼을 원했고 어머니는 이혼을 수락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자식 셋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식당을 하시면서 고생스럽게 생계를 꾸려 나가셨다. 어머니는 화를 잘 내셨고 가끔씩 자신을 혼내셨는데 왜 자신이 혼을 내는지 이해가 안갈 때가 많았다. 때로는 감정기복이 심한 어머니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는 코드니에게 '남자는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라면서,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너를 밟고 너가 잘 돼야 한다'고 누누히 말씀하셨다.

다섯 살에 떠난 아버지는 그녀가 국민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집으로 다시 돌아 오셨다. 그

후, 어머니는 그렇게 모질게 떠나셨던 아버지에게 화를 내시기는 커녕, 왕을 모시듯 절절하며 사셨다. 행여 내연녀에게 돌아갈까 두려워 눈치를 보시다가 미국 이민을 감행하셨다. 아버지는 자신의 위엄을 지키시려 식구들과 항상 거리감을 두셨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다. 자라면서 남자를 절대 믿지 말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과 다시 떠날까 두려워 아버지를 왕처럼 모시는 어머니의 순종의 나약함이 이율배반처럼 느껴졌다.

대학교 때 처음으로 연애를 했다. 첫 남친 팀과 가까와지면서, 자신의 감정에 급격한 변화가 왔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팀만 생각이 나고,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었다. 그의 연락에 민감해지면서 그의 반응에 점점 더 집착이 되어갔다. 그와 연락이 안되면 안절부절 되다가도, 그와 연락만 되면 안심이 되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팀은 그녀가 너무 의존적이고 자신을 너무 필요로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보낸 소식에 답장해줄 것을 요청할수록 그는 더 자신의 요청을 무시했다. 그녀는 점점 불행해졌는데, 왜 자신이 불행한 이 관계를 지속하려 하는지 이유를 몰랐다. 결국 팀은 그녀를 집착녀로 몰아서 관계를 끝냈다. 그녀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의 첫 남친 팀과 그녀의 아버지는 '회피애착유형'이라는 비슷한 면을 갖고 있다. 스티브 롤스 (Steve Rholes, Texas A&D University)는 그의 리서치를 통해 "회피 애착유형은 자신이 파트너로부터 무심해질수록 매력적이 되어간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즉, 회피애착유형은 다른 이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회피 애착유형은 '자기 의지(Self-Reliance)'를 선호하는데, 자기 의지의 획득은 성관계의 친밀함과 가까운 관계가 주는 편안함을 방해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고 보고한다. 회피애착유형이 너무 가까운 관계를 기피하고 '자기 의지'

를 자립심이라고 혼동하는 경향이 있기에, 파트너의 요구나 필요는 자신의 필요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Levine & Heller, 2010)

코드니의 첫 남친 팀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의 식구들이 간절히 원하는 애착의 감정을 무시하듯, 코드니가 절실히 감정적인 필요를 할수록 그녀를 더 무시하고 질책했다. 코드니의 어머니도 자신이 버림받은 상처로 코드니가 절실히 갈망하는 애착 친밀감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지 못했다. 레빈은 상처많은 어린 시절의 애착형성이 '회피애착유형'을 만나면, '매조키스틱 경계 성격 형성(Masochistic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이 일어나기가 쉽다고 한다. 이것을 레빈은 '활성화된 애착체계'라고 한다. 연구에 따르면 '불안 애착 유형'의 성급한 결론을 보이는 경향은 감정상태를 잘못 해석하기 쉽다고 한다. (Fraleigh & Lermont-Ferrand, ECT-R attachment style)

처음에 코드니가 팀과 가까와지고 했던 열망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팀이 회피를 하기 시작하자, 애착을 갈망하는 코드니의 애착 체계가 다른 이들보다 많이 활성화되면서 불안, 몰두, 집착과 같은 순간적인 희열을 사랑으로 착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팀의 반응은 그녀에게 가끔씩만 맛보게 하는 기쁨일뿐, 팀과 연애를 하는 동안 '불안, 걱정, 집착'의 주된 감정으로 그녀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아픔이 그녀에게 '매조키스틱 경계 성격형성'을 가져왔다.

만약 그녀가 팀을 만나기 전 '안정 애착 유형'을 갖고 있었다면, 그의 회피 행동에 거부 반응을 느껴 관계를 일찍 끝냈거나, 자신의 관계에 필요로 하는 요구를 당당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팀과의 관계를 지나칠 정도로 귀하고 조심스럽게 여기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그녀의 모든 행동에 제약을 걸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듭되는 관계의 실패로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를 갖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테라피를 통해, 그녀는 연애의 관계에서 거부를 너무 두려워하는 '불안 애착 유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그녀가 절실히 원하는 애착열망을 줄 수 있는 상대인지를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렸다. 그녀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준 가족 환경과 첫 남친에게 받은 상처를 인지하면서 그녀가 애정 결핍을 보이는 것은 그녀에게는 당연한 현상임을 인식하게 하였다. 그녀의 연락에 간절해하는 모습에 질책을 하는 남자는 회피 애착 유형임으로 그녀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대상임을 직시하게 했다.

새롭게 호감가는 상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자신을 사귀기 위해서는 서로의 연락을 존중해주시기를 요구했다. 처음 자신의 감정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남자가 떠날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왔다. 새로운 남친은 그녀의 요구에 충신했다. 연락이 두절되지 않고 즉시 반응을 받으니, 예전에 생겨났던 '애착 체계 활성화'가 생기지 않았다. 새 남친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자신을 변화하기보다 '이 사람은 내가 '안정 애착 유형'으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자신의 요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수월해져 자 효과적 대화법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코드니는 '안정 애착 유형을 갖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성인이 되어 누군가와 '애착 형성'을 갖느냐는 어린 시절 '애착'을 만들어 가는만큼 중요하다. 누군가를 만나 평생하는 관계는 자신의 팔자에 중요한 요소다. 좋은 팔자를 갖고 싶다면, 자신이 어떤 애착 유형인가를 솔직하게 판단하고, 어떤 타입과의 관계가 자신의 손상된 애착 유형을 복구하게 할 수 있는지 신중히 고려하자. 자신의 애착 유형을 더 알고 싶다면 레빈&헬러의 'Attached'를 권유한다.



Summer 2015 Program
Sign Up Now!

Essay Writing Workshops: Middle and High School

Make essay writing easier for you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Enroll your student in a ReadWrite essay workshop where students study the elements of a quality essay and prepare, write and revise up to two essays in class.
Monday to Friday 9:00 to 11:00 AM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150 per week/ \$125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

Summer Days Program: Grades 3 to 8

Our Summer Days program offers kids summer fun while they continue to build their reading, critical thinking and writing skills. In between outdoor activities and creative projects, kids read, discuss readings and write related essays.
Monday to Friday 9:00 to 3:00 PM
Before care and extended day options available.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270 per week/ \$250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

Weekly Year-Round Classes: First Grade through High School

Students practice essay writing, and critical thinking and reading skills in a small class. Students improve writing skills by drafting, revising and polishing persuasive essays, opinion pieces, narratives and more. Our curriculum and class size are structured for open enrollment, and ensure that each student's needs are met. Classes are held year-round.
Class schedules can be found at: <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
Classes: (Grades 1-12)
• Reading/Writing Workshop (1-4)
• Literary Analysis (5 to 8)
• Expository Analysis (5 to 10)
• Intensive Essay Writing (High school)
• Tutoring: SAT, ACT, ISEE, SSAT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이나 전화 857-404-0170 으로 연락바랍니다. 무료 Trial 클래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원하는 한국 방송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끊김없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시니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5월 31일까지(2년 약정시)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서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83)

금융회사 직원의 401(k) 소송

미국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한 금융회사의 웹사이트에서 회사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 우리 회사는 재정설계의 리더(leader)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꿈과 재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재정 상담가 10,00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회사는 아메리플라이즈(Ameriprise) 금융회사입니다. 최근 이 회사는 회사 직원들의 소송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 내용 중 하나는 회사가 \$27,500,000을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Ameriprise to pay \$27.5 million settlement in 401(k) fiduciary breach suit, InvestmentNews, 3-26-2015)

대기업인 Ameriprise나 새롭게 창업한 작은 회사나 직원들의 은퇴계획인 401(k)을 제공할 때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직원들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에

요구되는 “신의 성실 의무 (fiduciary duty)” 입니다. 노동국은 직원들이 은퇴플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종목, 저렴한 경비, 등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합니다.

Ameriprise 회사는 이러한 책임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제공한 뮤추얼 펀드는 Columbia Management와 합병한 RiverSource 펀드입니다. 이 펀드의 경비는 다른 비슷한 펀드와 비교해서 많은 경비를 부과합니다.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은퇴계획이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직원들이 회사 상대로 소송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기업, 일반 투자자를 위한다는 최대의 금융회사인 Ameriprise의 401(k)가 이러하다면, 작은 회사들의 은퇴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주의 최대 관심은 회사 운영과 발전입니다. 직원들의 은퇴계획은 그 다음 일입니다. 사실 기업주 자신도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재정상담가나 은퇴계획을 형성하는 회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은퇴계획을 위임받은 회사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은퇴계획을 형성할 가능성이 큼니다.

은퇴계획을 위임받은 회사는 먼저 401(k)을 위한 투자종목을 설정합니다. 투자종목이란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입니다. 선정된 뮤추얼 펀드에 직원들이 투자하면 자동으로 수수료와 펀드의 경비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 투자자는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 아니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기가 경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도 알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백만 달러(\$1,000,000)를 투자하여 10.0%의 수익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비가 1.0%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곳에 투자하면 20년 후에는 약 5백60만 달러가 되고 2.0%가 부과되는 곳에 투자하면 같은 20년 후에 4백60만 달러로 적어집니다. 단지 1.0% 수수료의 차이가 무려 \$943,454가 됩니다. 20년 후 거의 백만 달러(\$1,000,000) 차이가 납니다. 이 많은 돈을 남에게 선물(?)합니다.

이 돈은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한 소중한 자산이며 자식이나 손주 혹은 모교에 기부할 수 있는 돈입니다.

Ameriprise 와 직원과의 법적인 소송에서 일반 투자자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 회사의 직원인 재정상담가는 회사에서 제공한 투자종목의 비용이 비싸다고 소송을 했지만, 일반 투자자의 돈은 이렇게 비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재정상담가는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이익을 우선하고 그다음 손님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든다면 재정상담가는 가격은 비싸고 맛이 없는 음식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지만 똑같은 음식을 본인의 고객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한 푼이라도 적게 주는 것이 그만큼 나의 호주머니에 남습니다.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total) 경비로 얼마나 부과되는지 자세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사기 전에 나중에 팔 것도 생각해야

[주택구입]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는 봄 시즌을 맞아 생애 첫 주택구입에 나서는 바이어들이 급증하고 있다.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택가격은 기본이고 자녀가 있을 경우 동네가 소속된 학군, 직장에서의 거리, 대중교통과 안전성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주택구입과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평범한 팁은 많지만 적지 않은 바이어들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챙기지 않은 채 덤덤 집을 구입한 후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 주택구입 과정에서 바이어들이 지나치기 쉬운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나중에 팔 것을 생각한다

자녀를 가지거나 나이드 부모를 모셔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바이어들은 첫 주택을 구입한 후 몇 년 정도만 그 집에서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 오래 살지 않고 집을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사기 전에 팔 생각을 하고 좋은 조건들을 갖춘 집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학군이 나쁜 동네, 주변에 대로가 있어 자동차 소음이 심한 장소에 있는 집을 구입할 경우 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만든다

주택 구입에는 감정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집을 평가할 때는 가능하면 감정을 내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체크해 나가야 한다. 집을 보러다닐 때는 이 리스트를 지참하고 다니고, 하나씩 체크한다.

만약 어떤 집과 사랑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단 한 개도 갖추지 않았다면 구입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만드는 효과가 있다.

■ 모든 비용을 고려한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모기지 융자 원금, 이자, 재산세, 보험료 등이 붙는다. 하지만 비용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각종 유틸리티, 출퇴근 때 자동차 개스값, 집 내·외부 업그레이드 등 홈오너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늘어난다.

동네를 관할하는 유틸리티 회사에 연락을 취해 매월 전기·가스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고 유틸리티를 절약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본다.

■ 집을 사기 전 HOA 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한다

콘도나 타운하우스 구입을 고려한다면 집을 사기 전에 해당 단지의 HOA 계약서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오픈하우스가 HOA 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기 좋은 이벤트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부 단지들은 홈오너가 집을 세놓지 못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집을 산 후 렌트를 생각하고 있다면 HOA 계약

서에 렌트 금지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택구입 자금마련 방법을 리서치한다
 주택구입에 도움을 주는 그랜트(무상 지원금)는 무수히 많다. 소득이 낮아야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실제로 중산층 바이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있다.

교사, 농부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그랜트, 시골 지역에 위치한 주택구입을 원하는 바이어를 위한 그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을 찾도록 노력한다.

■ 서명하기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다

집은 일생동안 구입하는 물건 중 가장 가격이 비싸다. 따라서 계약조건을 확실히 파악한 뒤 구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에게 문의하도록 한다.

만약 이들이 도움을 주기를 거부하면 고용 관계를 당장 청산하도록 한다. 바이어를 도와 줄 전문인은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

■ 주변 이웃들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한 동네에 렌트를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은 주택가치 상승에 큰 도움이 못 된다. 몇몇 렌터나 건물주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으면 동네 수준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미혼자가 많은 동네면 어린 자녀들을 둔 부

모 입장에서 살고 싶은 곳은 아닐 것이다.

■ 전망이 좋은 집은 조심한다

전망이 좋다고 집을 덜컥 샀다가는 크게 후회할지도 모른다. 집을 산 후 로컬 정부가 주변부지 내에 부동산 개발계획을 승인, 규모가 큰 건물이 들어서면 좋은 전망은 사라질 수 있다.

■ 꾸미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많은 셀러들은 오픈하우스를 열기 전 집 내부를 아름답게 꾸민다. 많은 바이어들이 이런 꾸미기에 현혹돼 구입계약을 체결한다. 특정 주택구입을 고려할 때 이런 꾸미기는 머릿속에서 지우도록 한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구속사 성경 세미나

The History of Redemption Semiar at Harvard University

강사



이필립 박사 Th.D.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미국 페이스 신학교 신학박사 Th.D.
 (현)중앙신학대학교 대학원 외래 교수
 (현)미국 페이스 신학교 교수
 (현)미국 크리스찬 칼리지 부총장

통역



박종서 목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LA 학사
 리폼드 신학교 NC 신학석사
 베리트 신학교 신학박사
 낙스 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구속사 시리즈 영어 번역 책임자
 실로 세계 선교회 목사



5.26 제 1강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에 담긴 비밀 (창 5:1)

5.27 제 2강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에 담긴 비밀 (창 11:10)



저자의 방대하고 해박한 지식이 돋보이는 매우 건전한 복음주의신학 전통을 계승한 책

브루스 윌키 박사
 • Dr. Bruce K. Wolfe
 • 달라스 신학대학교 신학박사,
 • 하버드 대학교 고대근동문학박사
 • 리젠트 신학대학교 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교수
 • 달라스 신학대학교 교수, 낙스 신학대학원 교수
 • NIV, NASB 성경 번역 위원
 • 뉴제네바 스테디 바이블 편집자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는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성경 속에 살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분

워렌 게이지 학장
 • Dr. Warren A. Gage
 • 미국 남부감리교대학교 학사 수석 졸업
 • 미국 달라스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수석 졸업
 • 미국 남부감리교대학교 법학박사
 • 미국 달라스 신학대학원 정치 철학박사
 • 독일 튀빙겐대학교 박사후 과정 수료
 • 현 낙스 신학교 구약학 교수 및 학장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책이며, 뛰어난 성경 연구의 결과

노먼 매노허 박사
 페이스 신학대 총장

세계 어떤 저작에서도 살피볼 수 없는 한국교회의 자랑거리

민영진
 •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Ph. D)
 •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기념성서주석 출애굽기 전도서, 아가서, 사사기, 룻기 저자
 • 前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대한성서공회 총무
 • 現 세계성서공회 아태지역 이사회 의장
 침례신학대학교 특임교수



세계 도처의 저명한 도서관이나 국립 도서관 서가에 꽂힐만한 저작(巨作)

민경배
 • 前 연세대학교 교수,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 現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2015.5.26 (화) – 5.27 (수) 오후 7:00

주최: Harvard Extension Wellness Club

협찬: 보스톤 사랑제일 교회

장소: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Studies (CGIS) South Building
 Belfer Case Study Room (Room #SO20)
 1730 Cambridge Street Cambridge, MA 02138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가능한가?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 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오래 전 일입니다.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진 채 운전을 하던 제 친구는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제 친구는 원래 대범한 놈이기도 했지만 경찰이 “왜 얼굴이 빨갱냐? 술 마신 거 아니냐?” 는 질문에 당당하게 “난 인디언이라 원래 얼굴이 빨갱다. 지금 인종차별 (racial discrimination)하는거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도 놀랄 정도로 당황한 경찰관은 “나는 절대 인종차별 의도는 아니었다. 오해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라고 하며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 내 아시아인의 수가 많아진 요즘에는 이러한 장난이 통하지 않겠지만 이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인종차별에 예민한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사회적 금기사항입니다.

최근 뉴욕 타임즈는 한국인 네일업자들이 이러한 인종차별을 서슴없이 하는 집단으로 표현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The Price of Nice Nails” , 2015년 5월 7일자). 해당 기사는 뉴욕 네일 업계 전반의 저임금이나 부당대우 등 네일 산업의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뉴욕시 네일 샵의 70-80퍼센트가 한국인 소유라는 점을 언급하며 “인종 계급 제도” 라고 소제목을 잡은 문단들에서는 한인 업소 전체가 인종차별 (racial discrimination)을 하고 있는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비한국인 직원들은 점심을 작은 부엌 구석에서 서서 먹지만 한국인 직원들은 각자 책상에 앉아 점심을 편히 먹는다” , “[한국인 미용사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죠...왜 우리를 차별하는 건가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데” 라는 내용과 같이 자극적인 내용을 서슴없이 포함하였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한 개인의 증언으로 표현했지만 신문 기사를 읽고 나면 마치 네일업계의 모든 한국인이 “인종차별” 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를 곧이 곧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한국인들이 사회적 금기인 인종차별을 저지르는 무례한 집단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곱씹어보고자

합니다. 과연 한국인 네일 업계는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Defamation)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소인(원고)은 1)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2) 이 내용이 글 혹은 말로 제 3자에게 전달되었고 3)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제 3자에게 전달된 것은 피고의 잘못이며 4) 이로 인해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뉴욕타임즈 사태의 경우,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문이나 방송매체들은 미국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문이 사실을 통해 어떤 단체나 정부 기관, 인물을 비판 한다고 해도 이는 신문의사의 의견으로 보기 때문에 신문은 언론의 자유에 따른 보호를 받고 상대는 명예훼손 소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뉴

스나 신문 기사는 100% 사실만을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사실 (substantially true)” 이라면 보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의 경우, 그 내용이 “대체로 사실” 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논쟁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뉴욕 총영사관은 사태 파악에 들어갔고 뉴욕한인학부모협의회는 뉴욕타임즈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뉴욕 타임즈의 기사가 네일 업계 전반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준다면 좋겠지만 기사로 인한 한국인 네일업자들에 대한 오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겠습니까.

명예훼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기존칼럼은 www.songlawfirm.com의 소식&자료 메뉴 또는 www.bostonkorea.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2015 미국 명문 대학 정규지원 분석: 스탠포드 대학교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21세기에 접어들어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컴퓨터 대응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 실리콘 벨리에서 만들어진 애플의 영향이 크고 스탠포드와 버클리대학 출신들이 주도로 만든 IT 발달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IT산업의 번성은 스탠포드 대학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고 많은 학생들의 드림 대학이 되었다. 스탠포드는 미국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의 형태이다. 아카데미와 운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대학으로 이론과 실용의 병행을 강조하는 대학이다. 또한 리서치 중심 대학이지만 리더쉽과 경영 마인드를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더욱 유명하다.

학교 기금의 증가는 다양한 지역에서 최고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더욱 많이 리쿠르트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세계 경제의 침체는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도 고려하여 실용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고 취업도 유리한 스탠포드 대학으로 지원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미국 최고 명문 대학교들 중 올해 역시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지원했고 이는 스탠포드 역사상 가장 많은 지원자 기록

도 세웠다. 올해 총 42,487명이 지원하여 정규에서 1,402명과 조기에서 742명이 합격하여 총 2,144명이 합격하였다. 스탠포드 지원자가 증가한 또 하나의 이유는 대학이 재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해서 보다는 많은 우수한 저, 중간 소득층 가정출신 학생들의 지원 증가이다. 가구당 연소득이 \$65,000 이하일 때는 전액, \$125,000 이하 일때는 최고 학부부 부담액이 \$14,500을 넘지 않도록 등록금 보조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이는 기존 \$60,000-\$100,000 정책에서 조금 상향 조정된 정책으로 바뀌어 보다 많은 우수한 학생들 유치에 주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올해 합격한 학생들은 미국 50개주와 77개 국가 출신들로 구성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었다. 스탠포드는 입학조건이 명확하여 원하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입학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학교다. 물론 학교의 기준은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로 지원자들의 매년 성향에 따라 다소 예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스탠포드가 선호하는 학생들 성향은 강한 리더쉽, 도전적인 과목 수강과 우수

한 학점, 국제 대회 입상 또는 국내 레벨에서 지속적인 입상, 특정분야의 재능이 입학에 중요한 요소다. 또한 칼리지 카운셀러의 충분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다.

스탠포드는 확실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조기 지원 시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은 학교이고 지원률 역시 매우 높은 학교다. 특히 스포츠 리쿠르트, 레가시(Legacy), First Generation, 저소득 가정출신이지만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조기 지원 시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확실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조기 지원보다 정규 지원을 추천한다. 참고로 올해에 7,297명의 학생들이 조기에 지원하여 743명이 입학허가되었고 562명은 정규 과정으로 입학결정이 연기되었다. 거의 6,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조기에서 입학 거절되었다. 스탠포드는 미국 명문 대학 중에서 조기 지원자 거절률이 가장 높다. 조기에 입학허가된 학생들 중 약 40-50%의 학생들이 스포츠로 리쿠르트 된 경우라는 점도 주의 깊게 볼 사항이다.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네일살롱, 새 장비들, 매매가격 \$6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뉴햄프셔(보스톤에서 1시간 거리)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고급동네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45,000 매매가격 \$40,000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매매가격 \$50,000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랍 스토어 연매상 \$90,000 매매가격 \$30,000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매매가격 \$99,000 32년만에 은퇴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2015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I (Old, New)

- 기간: 6.22~8.21
(3주단위,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프로그램(9:00~5:30)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home work, 단어 test, 매일 test결과보고서 발송)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College App Essay

- 기간: 7.13~8.21
(2주단위,3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강사:
15년 이상의 강의경력
에세이및 교정 전문가
- 수업내용
 - Common App 에세이 주제
 - 자신에 가장 적합한 주제선정과 표현법
 - 완성도를 높이는 교정법

III.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7.13~8.21
(3주단위,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력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